

터키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1. 국가개요 /1
- 2. 정치사회동향 /2
- 3. 한국과의 주요이슈 /5

II. 경제

-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5
- 2. 주요 산업 동향 /8
-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12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13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17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19
 - 대한수입규제동향 /29
 - 관세제도 /30
 - 주요인증제도 /31
 - 지적재산권 /31
 - 통관운송 /32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35
- 외국기업 투자동향 /37
- 우리기업 투자동향 /40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42
- 진출형태별 절차 /45
- 투자입지여건 /49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49
- 조세제도 /51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52

V. 기타 유용한 정보

- 1. 시장특성 /52
- 2. 물가정보 /55
- 3. 바이어발굴 /58
- 4.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59
- 5.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61
-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63
- 7. 이주정착 가이드 /64
- 8. 출장가이드 /68



1992 Magellan Geographic/SMSanta Barbara, CA (800) 929-4627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명	터키공화국 (Republic of Turkey)
위치	유럽 남동부 및 아시아 서부
면적	783,562km ² (남한의 7.8배)
기후	해안: 지중해성기후, 대륙: 대륙성기후
수도	앙카라(Ankara)
인구*	70,586,256명
주요도시*	Istanbul(1,257만 명), Ankara(447만 명), Izmir(374만 명), Bursa(244만 명), Adana(201만 명)
민족	터키계(86%), 쿠르드계(9%), 아랍인(36만 명), 아르메니아인(5만 명), 소수의 유대인 등
언어	터키어(공용어), 쿠르드어, 아랍어
종교	이슬람교(98%, 수니파 다수), 기타(2%, 기독교 및 유대교)
건국(독립)일	1923년 10월 29일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를 가미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실권자)	○ 국가원수: Abdullah Gul ○ 취임일: 2007. 8월(7년 임기)
	○ 수상: Recep Tayyip Erdogan(실권자) ○ 취임일: 2007. 8월(5년 임기)

자료: 터키통계청, TAIK(Turkish-U.S. Business Council), 등

나. 경제지표

GDP	6,588 억 달러 (2007년 기준)
실질경제성장률	4.2%(2008년 상반기 기준)
1인당 GDP	9,333달러(2007년 기준)
실업률	9.0%(2008년 상반기 기준)
물가상승률	9.43%(2008년 8월 기준)
화폐단위	New Turkish Lira(YTL)
환율	1달러 = 1.25YTL(2008년 9월)
외채	2,629 억 달러(2008년 1사분기)
외환보유고	1,177 억 달러(2008년 상반기)
산업구조	농수산업 및 임업(11.1%), 제조업(29.3%), 서비스업 (59.6%) (2006년)
교역규모	○ 2006년 - 수출 855.35억 달러, 수입 1,395.76억 달러, 무역적자 540.41억 달러 ○ 2007년 - 수출 1,072.72억 달러, 수입 1,700.63억 달러, 무역적자 627.91억 달러 ○ 2008년 1~7월 - 수출 813.97억 달러, 수입 1,263.80억 달러, 무역적자 449.83억 달러
교역품	○ 수출: 자동차, 기계류, 철강, 의류 ○ 수입: 광물성 연료, 기계류, 전기기계 및 장비, 자동차, 플라스틱류

주: GDP는 current price 기준임. 터키 통계청에서는 2007년 GDP 계산시 기존과 달리 EU방식의 통계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1인당 GDP 및 GDP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나옴.

자료: 터키 중앙은행, 대외무역청, 통계청

다. 한-터 관계

체결협정	사증면제협정(72.5) 문화협정(74.5) 통상진흥 및 경제기술협력협정(77.12) 항공협정(79.10) 2중과세방지협정(86.3) 투자보장협정(94.6) 섬유협정(97.12) 원자력협력협정(99.6) EDCF 기본협정(03.4 서명, 미발효) 관광협력협정(06.10 서명, 미발효)
교역규모	○ 2006년 - 우리나라 수출: 30억 3,600만 달러 - 우리나라 수입: 1억 9,400만 달러 - 무역흑자 28억 4,100만 달러 ○ 2007년 - 우리나라 수출: 40억 8,700만 달러 - 우리나라 수입: 2억 8,200만 달러 - 무역흑자 38억 500만 달러 ○ 2008년 1~7월 - 우리나라 수출: 23억 8,400만 달러 - 우리나라 수입: 2억 3,400만 달러 - 무역흑자 21억 5,000만 달러
교역품	○ 수출: 자동차, 자동차부품, 무선통기기기, 철강판, 합성수지, 건설광산기계 ○ 수입: 의류,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기호식품
투자교류	○ 우리나라의 대 터키 투자 - 2006년:(14건, 4,000만 달러-신고), (20건, 1,500만 달러-투자) - 2007년:(28건, 1억 3,100만 달러-신고), (56건, 1억 1,100만 달러-투자) - 2008년 상반기: (16건, 1,863만 달러- 신고), (23건, 3,566만 달러-투자) ○ 터키의 대한투자: 41건 6,309 천 달러(1996~2008 상반기 - 신고)
교민	총 교민 수 약 1,400명(일시 체류자 포함) (2007년 추정)

주: 신고건수는 공동투자, 증액투자를 포함/ 투자건수는 송금건수

자료: 터키 대외무역청,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2. 정치 사회 동향

가. EU 가입문제

터키의 EU가입은 2005년 10월,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목전에 둔 것처럼 보였으나, EU 집행위는 2006년 11월 발표된 EU 연차 보고서에서 EU가입을 위한 터키 정부의 개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평가에 따라 터키에 대한 35개 협상항목 중 무역, 금융 등 8개 항목에 대한 협상을 전면 보류하여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바 있다. 공식적인 이유는 언론 및 종교의 자유 보장, 여성인권 개선, 소수민족 및 노동조합 권익 보호 등이나, 실제로는 남 사이프러스 영공 및 영해개방, 아르메니아 학살 문제 등과 관련하여 기존 EU가입국들과의 마찰이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사이프러스는 1974년 터키군의 침공으로 현재 남(그리스계)과 북(터키계)사이프러스로 분단된 상태로 현재 남사이프러스만 EU에 가입되어 있다. EU에서는 터키의 EU 가입조건 중 하나로 남사이프러스에 영공 및 영해를 개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나, 터키 정부는 그 동안 이를 거부하여 왔다. 2006년 12월, 터키 정부는 남사이프러스에 대해 항구 및 공항을 각각 1곳씩 개방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EU 측에서는 전면 개방을 요구하면서 결국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아르메니아 학살사건은 1차 세계대전 당시 터키군대에 의해 아르메니아인들이 학살된 사건으로, 2006년 10월 프랑스 하원은 이를 전쟁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상정하여 가결 시켰다. 이 문제로 인하여 현재 터키와 프랑스는 정치적인 갈등관계에 있으며 프랑스 제품 불매운동 등 프랑스에 저항하는 운동이 터키 전역에서 발생한 적도 있다. 프랑스 외에도 터키와 오랜 우호관계를 맺어온 미국의 상하원에서도 동 사건을 대학살로 인정하는 법안을 상정하는 등 동 사건은 유럽 지역을 벗어난 국제 문제로 대두되었다 할 수 있다. 특히, 2007년 1월 이스탄불에서 아르메니아계 유명 터키언론인이 피살되는 사건을 계기로 동 사건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터키 정부는 당시 아르메니아인들 뿐 아니라 수많은 터키인들도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국가에 의해 아르메니아 사건이 정치적으로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역사적 사실에 뒷받침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재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터키 정부는 2007년 4월, 2013년 EU가입을 목표로 각 분야의 법률 및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7개년 로드맵을 마련하여 발표하는 등 EU 가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2007년 5월 Nicolas Sarkozy가 프랑스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터키의 EU가입은 더욱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Sarkozy 대통령은 터키 측에 EU 가입의 대안으로 이스라엘, 모로코 등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터키 주변국 위주의 Mediterranean Union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을 제안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터키의 EU 가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터키 정부는 다각도로 EU가입 협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고 이에 따라 2007년 6월 통계(Statistics), 금융시장감독(financial control) 등 2개 분야의 협상이 다시 재개되기도 하였으나, 2007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터키의 형법 개정 등을 요구하면서 추가적인 협상 재개를 거절한 바 있다.

2008년 5월 EU 집행위는 터키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2005년 터키의 EU가입 협상 재개 이후 터키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터키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터키 정부의 형법 301조 수정이 EU 가입 협상을 재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한편 터키 정부는 2008년 집권여당 폐쇄소송이 종결된 직후 EU 가입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집권여당 및 터키 정부에서 준비한 동 프로그램에는 실제 법령 개정은 물론 보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 향후 야당 및 각종 시민단체 등 터키 내 합의 절차를 거쳐 EU 집행위에 제출할 예정에 있다.

나. 대선 및 총선

2007년 4월 예정되어 있던 대통령선거에서 집권여당의 수장이자 현 총리인 에르도안(Erdogan)은 2007년 초 자신이 직접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야당 및

많은 국민들의 반대로 정치적 동반자인 외교부 장관 귤(Gul)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 그러나, 귤 후보 및 그 부인의 히잡 착용 문제로 인하여 세속주의를 지지하는 많은 시민 단체들이 반대 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시민 단체들은 수도 앙카라는 물론 이스탄불 등지에서 100만 명 이상이 운집한 대형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2007년 4월 27일 의회에서 실시된 제1차 대통령 선거가 정족수가 미달되었음에도 강행되자 터키 야당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거 개최를 위한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터키 군부 역시 집권 여당 측의 움직임을 세속주의에 대한 위기로 언급하면서 집권 여당을 포함한 정계에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하여 한때 쿠데타 위기설까지 돌기도 하였다. 2007년 5월 6일(일) 재실시한 대통령선거 역시 정족수가 미달되자 귤후보는 대통령 후보에서 자진 사퇴하였고, 이에 따라 여야 합의하에 터키 의회는 2007년 7월 22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였다.

2007년 7월 조기총선 결과 집권여당인 AKP가 압도적인 차이로 재집권에 성공하였고 이에 따라 2007년 8월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 결과 종전 여당 측 대통령 후보인 귤이 결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같이 2007년 대선 및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집권 연장에 성공함에 따라 집권 이후 계속되어 온 경제성장 및 EU 가입 추진 등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 집권여당 폐쇄 소송

2008년 3월 터키 최고재판소 Abdurrahman Yalcinkaya 검찰국장은 현 대통령은 Abdullah Gul과 총리인 Recep Tayyip Erdogan을 비롯한 집권여당(AKP)인사들의 친이슬람적인 활동을 펼쳐 터키의 세속주의에 큰 위협이 된다고 정당 폐쇄 소송을 최고재판소에 제기하였다. 터키 정치 역사상 현재까지 친이슬람적 성향으로 인해 폐쇄된 정당은 3개로 현 대통령과 총리 모두 폐쇄된 정당 소속이기도 하였다.

터키 최고재판소에서는 3월 말 검찰국장의 금번 소제기를 받아들여 집권여당 폐쇄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집권여당 측은 5월 중순 이번 소송에 있어 집권 여당의 입장을 약 100쪽에 달하는 자료를 통해 최고재판소에 제출하였다. 또한, 집권여당 측은 동 입장을 밝히면서 변론이 아닌 단순히 의견에 대한 답변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집권여당 측은 동 자료를 통해 AKP는 항상 세속주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어떠한 친이슬람적인 정책을 펼친 적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2008년 7월 30일(현지 시간) 터키헌법재판소는 관련 소송에서 집권여당 존속을 결정하면서, 경고의 의미로 정부보조금의 50%를 삭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같은 터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터키헌법재판소가 터키 사회 및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터키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 터키의 외환, 금융, 주식 시장 모두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안정세를 찾은 바 있다.

한편,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다른 여러 국가의 시장과 마찬가지로 터키 금융 및 주식시장 역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위기를 잘 넘기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터키는 한국전쟁 참전국으로서 우리 나라를 혈맹 우방국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후 경제 발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 나라와의 경제 협력 증진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82년 Evren 대통령의 공식 방한 이후 양국 주요 인사들의 정기적인 방문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2004년 Erdogan총리의 방한에 이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터키 방문으로 양국 간 우호가 더욱 돈독해지고 있다.

터키는 UN, IAEA 등 국제 무대에서도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북부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 파병에 대해서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최근 터키정부는 차세대전차 및 훈련기 도입에 있어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하는 등 국방조달 분야에서도 새롭게 한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양국 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는 없으나 한국의 對터키 무역 흑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양국간 무역 불균형에 대해 터키정부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양국간 산업 구조 및 산업 발달 정도에 기인하는 문제로 한국이 수출할 품목은 많은 반면 수입할 품목이 많지 않은 데서 발생한다.

무역불균형 심화에 따른 문제점은 한국인 터키 관광객 증가 및 한국기업들의 對터키 투자를 통하여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인 터키 관광객 숫자는 1999 년 15,000 명에서 2005 년 91,579 명까지 급증하였으며 2006 년에는 180,140 명, 2007 년에는 135,124 명의 관광객이 터키를 방문하였다. (2008 년 1~8 월: 90,633 명) 또한 한국 기업들의 對터키 투자의 경우 1987 년부터 2008 년 6 월 말까지 총 125 건에 3 억 9,530 만 달러(신고기준) 수준으로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터키 정부 측은 최근 한국과 EU간 FTA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한-터간 FTA협상을 동시 진행할 것을 제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되지는 않고 있다.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주요 경제정책

2002년 11월 조기 총선을 통해 탄생했던 현 정부는 15년만의 단독 정부로서 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인플레이션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경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터키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타겟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터키 정부의 노력으로 터키 경제는 2004~2007 4년간 한자리수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보여온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들어 국제 원자재가격 폭등 및 수입 수요 증가 등에 따라 8월 기준 당초 터키중앙은행의 목표보다 2배가 넘는 9%가 넘는 물가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최근 3년 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환율은 2006년 5월 중순, 1일 변동폭이 10~17%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변동이 심하였으나 터키 정부의 적극적 외환 시장 개입으로 인해 변동 폭이 줄어들면서 차츰 안정세를 찾은 바 있다.

또한, 2007년 5월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위기로 인해 외환 시장은 물론 터키 경제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07년 7월 조기 총선 결과 집권 이후 성공적인 경제 정책을 수행해온 집권 여당이 압도적인 차이로 재집권에 성공하고 대통령 선거도 원활히 진행된 이후 2007년 하반기부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8년 초 집권 여당 폐쇄소송과 관련하여 터키 외환, 금융 및 주식 시장내 동요가 예상되었으나 7월 말 집권 여당 존속 결정이 나면서 터키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도 한 바 있다.

터키는 2001년 경제 위기 이후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지속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관계로 2010년까지 IMF 구제 금융 상황과 더불어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 안정화, 긴축 재정 등 IMF가 제시한 거시경제 지표 달성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IMF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공공 부문 인력 감축, 세제 개혁, 은행 감독 기구 개혁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터키 정부는 이러한 IMF 측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

이 같은 터키정부의 경제 정책은 IMF로부터의 구제 금융의 수혜를 얻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EU가입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 터키는 EU가입을 위해 2001년 EU 공통법(EU Acquis Communautaire)에 부응하는 국가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터키 정부의 국가 발전 계획은 지속적인 경제 안정화, 금융 분야 규제 완화를 위한 중앙 은행과 은행감독 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 대규모 공기업들의 민영화 등을 목표로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한편, 터키의 EU가입과 관련해서는 2005년 10월 3일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면서 터키는 EU와 35개 분야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각 분야별 적격 심사 과정(Screening Process)을 거쳐 분야별 본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과학 및 연구, 교육 등의 분야는 EU가 구체적인 규범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타결되었으며, 상품, 서비스, 자본 이동의 자유, 경쟁 및 교통 정책, 에너지, 정의, 가정 문제, 고용 및 사회 정책 분야는 2005년 가입한 10개국의 예에서 보듯이 까다로운 항목이 될 전망이다. 특히, 농업과 환경 분야는 터키에게 가장 까다로운 협상 항목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2006년 11월 EU는 연차 보고서를 통해 EU가입을 위한 터키의 개혁 속도가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상품 교역, 교통, 농업, 금융 서비스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협상 보류를 선언했다. 2008년 5월 발표한 2007년 보고서에서도 EU측은 형법 301조 개정 등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터키 집권여당 및 정부는 2008년에 EU 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EU 가입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하고 있다. 터키 집권 여당 및 정부 측에 의해 마련된 금번 프로그램은 법률 개정까지 포함된 구체적인 방안으로 향후 야당 및 시민단체와 협의후 EU 집행위 측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EU 집행위측에서 터키의 금번 프로그램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그동안 지연되던 EU 가입 협상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 연도별 거시 경제 지표

경제지표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경제 성장률	7.8%	5.9%	9.9%	7.4%	6.1%	4.5%	4.2% (‘08년 상반기)
소비자 물가지수	29.7%	18.4%	9.3%	7.7%	9.6%	8.4%	9.43% (2008년 8월)
1인당 GDP	U\$2,622	U\$3,412	U\$4,187	U\$5,016	U\$5,126	U\$ 9,333	-
수출 (FOB, 백만\$)	U\$36,059	U\$47,252	U\$62,774	U\$73,275	U\$85,142	U\$107,154	U\$81,397 (2008 1~7월)
수입 (CIF, 백만\$)	U\$51,554	U\$69,340	U\$97,161	U\$116,352	U\$137,032	U\$169,987	U\$126,880 (2008 1~7월)

주: 2007년 1인당 GDP의 경우 터키 통계청에서 EU 방식의 통계 방법을 채택함에 따라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하는 결과를 냄.

자료: 터키 중앙은행, 대외무역청, 통계청, EIU

다. 최신 경제 동향 및 전망

터키 경제는 2006년과 2007년 실질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수출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연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면서 IMF 및 국제 신용 평가 기관들의 평가도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특히, 터키 경제에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인플레이션도 4년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환율도 2006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자신감을 찾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2005년 430억 달러, 2006년 518억 달러에 이어 2007년에도 628 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는 무역수지 적자는 터키 경제의 숙제로 남아 있다. 특히, 2008년 7월까지 수출입실적을 살펴보면 국제 유가 인상 등으로 인하여 전년 동기 대비 무역수지 적자폭이 30% 이상 증가하기도 하는 등 예년에 비해 더욱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5년의 경우, 터키 정부가 인플레이션 잡기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7%를 기록하여 경제 안정성을 높였으며, 수출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산 증가에 따라 경제 성장률은 7.4%로 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거시 경제 지표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성장은 2006년에도 안정적으로 이어지면 서 경제 성장률 6.1%, 소비자 물가 상승률 9.6%를 기록하며 안정적 성장 궤도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2007년에도 터키 경제는 성장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특히, 터키 경제의 취약점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오던 환율 변동폭 도 2007 하반기 이후 2008년 상반기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안정적 경제 성장은 2002년 단일 정부 탄생 이후 그동안 터키 경제의 발목을 잡아 왔던 가장 큰 장애 요소인 정치 불안에서 벗어나 일관된 경제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정치 안정화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은 2007년 총선 및 대선에서 집권여당이 승리함에 따라 안정적인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2008년 3월 터키 사회, 정치, 경제의 가장 큰 이슈였던 집권여당 폐쇄소송에서 집권여당 존속 결정(보조금 50% 삭감 결정)에 따라 터키 경제 내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면서 터키 금융, 외환, 주식 시장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08년 상반기 터키 경제는 전세계적인 금융 위기, 원자재 가격 인상 및 터키 내수 시장 위축에 따라 4% 대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바, 터키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 주요 산업 동향

지금까지 터키의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은 석유의류 산업으로, 세계 4대 석유의류 강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석유쿼터제 폐지로 인하여 중국을 비롯한 동남 아시아 산 석유의류 제품이 크게 성장하면서 터키의 주력 산업구도가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과거 터키의 주력 산업으로 인식되어 오던 석유의류 산업의 비중이 줄어 들고, 자동차 및 전자산업 등이 새롭게 터키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집권하면서 시작된 터키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자 산업 등이 터키의 주요 산업으로써의 입지를 확고히 해나가고 있다.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은 터키 제1의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터키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또한, 석유 의류 산업 역시 최근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통해 중국 및 아시아산 제품과 차별화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등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 자동차 산업

터키에는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를 비롯, 포드, 르노, 토요타 등 세계적 브랜드들을 포함하여 총 18개의 자동차 공장이 활발히 가동 중에 있다. 이처럼 세계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터키에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유는 유럽 시장은 물론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등 인근지로의 수출이 용이할 뿐 아니라 터키 내수시장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터키 자동차 시장의 특성으로 포드, 현대자동차 등은 최초 투자 이후 시설 증설 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높이기도 하였고, 특히 2008년에는 프랑스의 푸조에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한편, 중국의 chery사까지 투자를 검토하는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브랜드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현재 승용차 2종을 생산 중에 있다. 한편, 터키 자동차 산업의 생산과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관련 부품의 수입 증가로 우리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회사별, 차종별 생산량

(단위: 대)

회사	승용차	소형 트럭	중대형 트럭	픽업	버스	미니 버스	중형 버스	트랙터	합계
A.I.O.S		2,930		2,984			1,928		7,842
ASKAM			74	5					79
B.M.C			5,637	2,624	959	965	184		10,369
Ford Otosan			6,434	261,025		18,897			286,356
Hattat								1,254	1,254
Honda Turkiye	23,663								23,663
Hyundai Assan	83,691			6,207		292			90,190
Karsan		93		3,824		1,550	4,253		9,720
M. Benz Turk			16,008		3,006				19,014
M.A.N.					2,069				2,069
Otokar				969	106	295	1,164		2,534
Otoyol			235	61			350		585
Oyak Renault	263,656								263,656
Temsa		3,133		3,963	806		1,426		9,328
Tofas	102,357			110,136					212,493
Toyota	161,516								161,516
Turk Traktor								18,350	18,350
Uzel								13,914	13,914
합계	634,883	6,156	28,388	391,737	6,946	21,999	9,305	33,518	1,132,932

소형트럭: 3.5-12톤, 중대형트럭: 12톤 이상

자료: 터키자동차제조자협회(www.osd.org.tr)

2008년 1~8월 회사별, 차종별 생산량

(단위: 대)

회사	승용차	소형 트럭	중대형 트럭	픽업	버스	미니 버스	중형 버스	트랙터	합계
A.I.O.S		2,277		2,562			1,934		6,773
ASKAM									0
B.M.C			3,894	1,032	863	732	51		6,572
Ford Otosan			4,630	196,847		12,540			214,017
Hattat								684	684
Honda Turkiye	34,460								34,460
Hyundai Assan	58,700								58,700
Karsan		468		2,747		1,328	3,291		7,834
M. Benz Turk			11,316		2,457				13,773
M.A.N.					1,005				1,005
Otokar				393	155	329	947		1,824
Otoyol									0
Oyak Renault	217,340								217,340
Temsa		2,003		2,788	591		1,329		6,711
Tofas	58,447			14,642					202,089
Toyota	100,293								100,293
Turk Traktor								16,601	16,601
Uzel								1,786	1,786
합계	469,240	4,748	19,840	350,011	5,071	14,929	7,552	19,071	890,462

소형트럭: 3.5-12톤, 중대형트럭: 12톤 이상

자료: 터키자동차제조자협회(www.osd.org.tr)

나. 전자산업

터키 전자산업은 자동차에 이어 확실한 수출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터키내 소비, 생산, 수출 규모 모두 매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 백색가전제품류는 터키의 주력 수출 품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EU시장에서는 최근 유로화 강세 및 터키제품에 대한 인지도 향상 등의 영향으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어 전체 백색가전제품 수출의 약 60% 이상이 EU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터키산 백색가전 제품의 강세에 따라 우리 나라 백색가전 제품의 대 터키 수출은 점차 감소세를 띄고 있으나, 주요 부품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터키 백색가전 제조업체들이 주요 부품 및 소모성 부품 중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전자산업 동향

연도	생산액(1,000달러)	수입액(1,000달러)	수출액(1,000달러)
1995	1,230,883	2,235,455	502,247
1996	1,575,916	3,017,213	687,485
1997	2,180,500	3,886,177	849,222
1998	2,341,304	4,398,742	1,256,926
1999	2,401,600	5,450,885	1,163,926
2000	2,910,645	6,577,130	1,391,894
2001	2,298,720	4,118,332	1,515,710
2002	2,663,710	4,329,606	2,411,528
2003	3,544,230	5,716,720	2,833,079
2004	6,814,640	8,940,139	4,029,329
2005	8,150,000	10,835,268	4,445,489
2006	9,481,917	11,033,340	5,062,957
2007	9,513,032	11,630,571	5,002,636

자료: 터키전자정보산업협회(www.tesid.org.tr), (2008년 9월 기준 자료)

다. 섬유산업

터키 섬유산업은 전통적인 천연섬유의 강세를 바탕으로 발달했다. 현재도 EU시장에 의류를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공급하고 있는 섬유강국이다. 2005년 섬유쿼터폐지로 의류의 수출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실제 통계 상으로는 터키 의류 수출이 2005년 약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출 단가는 전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현재까지는 터키 의류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리바이스 측에서는 터키 내 제품 개발 센터 설립을 결정하기도 하고, 유럽의 유명 브랜드와 터키의류업체 및 디자이너간 교류가 활발해 지는 등 터키 의류산업 고급화에 신호가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터키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약 20%를 고용하고 있고, 전체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터키 섬유산업은 저가의 장점을 내세운 중국섬유에 맞서 고부가가치화에 승부를 걸고 있으며, 동 전략이 지금까지는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결과 터키 섬유업계는 브랜드 전략을 적극 구사하고 있으며, 중고가 의류생산에 주력하고 있어 고급 직물을 가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터키 섬유 및 의류제품 수출 추이

(단위: 천 달러)

품목명(HS code)	2004	2005	2006	2007	2008(1~7월)
양모, 섬수모 등(51)	167,572	180,202	185,033	228,716	141,690
면사, 면직물 등(52)	1,219,991	1,179,569	1,337,714	1,611,153	1,058,752
기타 식물성 직물(54)	796,562	894,103	1,036,787	1,260,069	825,306
인조필라멘트(55)	925,406	963,201	1,033,818	1,044,649	639,755
인조 스테이플섬유(57)	517,543	669,989	742,965	988,867	629,094
침투, 도포 등(59)	239,060	260,767	284,067	316,045	211,356
니트 의류(61)	6,259,222	6,590,352	6,937,140	8,021,169	4,925,275
니트 외 의류(62)	4,536,829	4,862,376	4,709,132	5,444,234	3,362,539
기타 섬유(63)	1,856,536	1,969,748	1,920,219	2,109,226	1,262,454

자료: 터키통계청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터키는 1980년대부터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무역 자유화와 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을 채택하고, 법인세 감면, 세금 환급, 수출 보조금 지급 등 지원책을 시행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WTO 및 여타 국제 규율에 상응하도록 수출입 제도를 정비, 시행하고 있다. 2003년에는 수입 제도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WTO 및 EU 관련규정과 합치되는 수입제도시행령(The Import Regime Decree)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터키는 1996년 EU와 관세 동맹(Customs Union)을 형성하게 됨에 따라 수출입 제도 전반을 EU의 관련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기 시작하였으며, 중동구 유럽 및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은 EU의 공동 무역 정책과 같은 기초를 유지하고자 하는 터키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주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터키는 EFTA(1992), 이스라엘(1997), 마케도니아(2000), 크로아티아(200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2003), 모로코(2004), 팔레스타인(2005), 시리아(2004), 튀니지(2005) 이집트(2005), 알바니아(2006)와 관세동맹을 체결하였으며 요르단, 레바논, 파로 군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멕시코 등과는 현재 협상 중에 있다. 걸프 협력 위원회(Gulf Cooperation council)와는 협상을 이제 시작하였고 알제리, 칠레,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남아프리카 관세 동맹, MERCOSUR와 자유 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 나라와 EU간 FTA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터키 정부에서는 우리 나라와의 FTA 협상을 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터키는 몇몇 지역경제 협력기구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각 기구들은 아래와 같다.

가. Developing Eight (D-8)

터키는 이슬람 국가간의 경제협력확대를 목적으로 국가간 경제무역협력기구 창설을 선언하고 97.1. 이스탄불에서 D-8 각료급 회담을 개최하였고, 97.3. Antalya에서 고위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참여국: 터키, 이란, 이집트,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8개국)

나. 회교권경제협력기구(ECO)

1964년 터키·이란·파키스탄 3개국이 지역협력개발기구(Reg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RCD)로 창설하여 1984년 ECO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992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 추가로 가입시켜 지금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들 10개국은 93년 이스탄불 선언에서 무역 개발 은행 창설 등 8개 분야의 프로젝트를 2000년까지 추진기로 하였으나, 자원부족 및 회원국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활동은 부진하였다. 하지만 2000.3.6. ECO 무역기본협정이 체결되었고, 2003.7.17 아프가니스탄, 이란, 파키스탄, 터키 4개국 간 ECO 무역협정(ECOTA)이 서명됨에 따라 향후 활동이 활성화 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다. 흑해 경제 협력기구(BSEC: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흑해연안국의 교역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92년에 결성되어, 이스탄불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터키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하나 러시아, 그리스 등과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활동은 현재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회원국: 터키,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루마니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세르비아 등 12개국)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터키의 무역수지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04	2005	2006	2007	2008. 1~7월
수출 (증감률)	63,167 (33.7)	73,275 (15.8)	85,142 (16.1)	107,272 (25.3)	81,397 (39.0)
수입 (증감률)	97,540 (40.7)	116,352 (19.0)	137,032 (17.7)	170,063 (21.8)	126,380 (36.9)
무역수지 (증감률)	-34,373 (55.6)	-43,077 (24.88)	-51,890 (20.45)	-62,791 (21.1)	-44,983 (32.4)

자료: 터키통계청(www.tuik.gov.tr)

터키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은 수출이며, 특히 자동차, 가전제품, 석유류의 수출 호조로 지난 5년간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터키는 부품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부품들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완제품 수출 증가에 따라 수입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폭은 매년 더욱 커지고 있어 터키 경제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08년 상반기에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어 수출과 수입, 무역수지 적자 모두 각각 39%, 36%, 32%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이와 더불어 터키의 최대 수입품 중 하나인 원유 및 기타 천연자원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세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폭이 더욱 커져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터키의 10대 수출 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06		2007		증가율
		수출금액	전체비중	수출금액	전체비중	
1	독일	9,686	11.3	11,994	11.2	23.8
2	영국	6,814	8	8,626	8.1	26.6
3	이탈리아	6,752	7.9	7,479	7	10.8
4	프랑스	4,604	5.4	5,974	5.6	29.8
5	러시아	3,238	3.8	4,727	4.4	46
6	스페인	3,720	4.3	4,580	4.3	23.1
7	미국	5,061	5.9	4,145	3.9	-18.1
8	루마니아	2,350	2.7	3,651	3.4	55.3
9	U.A.E	1,986	2.3	3,241	3	63.2
10	네덜란드	2,539	3	3,018	2.8	18.9

자료: 터키통계청, 대외무역청(www.dtm.gov.tr)

터키의 10대 수출대상국(2008년 1~7월)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07 년 1~7 월		2008 년 1~7 월		증가율
		수출금액	전체비중	수출금액	전체비중	
총 계		58,558	100	81,397	100	39.0
1	독일	6,608	11.3	8,149	10.0	23.3
2	이탈리아	4,239	7.2	5,347	6.6	26.1
3	영국	4,612	7.9	5,164	6.3	12.0
4	U.A.E	1,657	2.8	4,767	5.9	187.7
5	프랑스	3,282	5.6	4,356	5.4	32.7
6	러시아	2,546	4.3	4,035	5.0	58.5
7	스페인	2,696	4.6	2,711	3.3	0.6
8	루마니아	2,035	3.5	2,575	3.2	26.5
9	미국	2,453	4.2	2,365	2.9	-3.6
10	네덜란드	1,650	2.8	2,047	2.5	24.1

자료: 터키통계청, 대외무역청(www.dtm.gov.tr)

터키의 10대 수입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06		2007		증가율
		수입금액	전체비중	수입금액	전체비중	
1	러시아	17,806	12.8	23,506	13.8	32
2	독일	14,768	10.6	17,547	10.3	18.8
3	중국	9,669	6.9	13,224	7.8	36.8
4	이탈리아	8,663	6.2	9,967	5.9	15
5	미국	6,261	4.5	8,144	4.8	30.1
6	프랑스	7,240	5.2	7,832	4.6	8.2
7	이란	5,627	4	6,614	3.9	17.5
8	영국	5,138	3.7	5,471	3.2	6.5
9	스위스	4,015	2.9	5,269	3.1	31.2
10	우크라이나	3,059	2.2	4,518	2.7	47.7

자료: 터키통계청, 대외무역청(www.dtm.gov.tr)

터키의 10대 수입국(2008년 1~7월)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07 년 1~7 월		2008 년 1~7 월		증가율
		수입금액	전체비중	수입금액	전체비중	
총계		92,544	100	126,380	100	36.6
1	러시아	12,620	13.6	19,688	15.6	55.0
2	독일	9,275	10.0	11,766	9.3	26.9
3	중국	6,844	7.4	9,336	7.4	36.4
4	이탈리아	5,598	6.0	7,153	5.7	27.8
5	미국	4,416	4.8	6,852	5.4	55.2
6	프랑스	4,411	4.8	5,757	4.6	30.5
7	이란	3,754	4.1	4,946	3.9	31.7
8	우크라이나	2,601	2.8	4,058	3.2	56.0
9	영국	3,129	3.4	3,605	2.9	15.2
10	스위스	3,253	3.5	3,088	2.4	-5.1

자료: 터키통계청, 대외무역청(www.dtm.gov.tr)

터키의 10대 수출품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상품분류	품목	2006	2007	증가율
1	87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11,886	15,902	33.8
2	84	보일러, 기계류 등	6,517	8,747	34.2
3	72	철강	6,273	8,352	33.1
4	61	의류(편물)	6,938	8,021	15.6
5	85	전기기계및장비	6,328	7,421	17.3
6	62	의류(편물 제외)	4,711	5,444	15.6
7	27	광물성 연료	3,567	5,147	44.3
8	73	철강제품	3,336	4,133	23.9
9	39	플라스틱류	2,214	2,821	27.4
10	71	보석류	2,388	2,670	11.8

자료: 대외무역청(www.dtm.gov.tr)

터키의 10대 수출품(2008년 1~7월)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상품분류	품목	2007. 1~7월	2008. 1~7월	증가율
1	87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8,976	12,802	42.6
2	72	철강	5,034	9,093	80.6
3	84	보일러, 기계류	4,927	6,442	30.7
4	61	의류(편물)	4,616	4,925	6.7
5	27	광물성 연료	2,535	4,737	86.9
6	85	전기기계 및 장비	3,759	4,594	22.2
7	73	철강제품	2,268	3,374	48.7
8	62	의류(편물제외)	3,032	3,363	10.9
9	71	보석, 귀금속류	1,199	3,321	176.9
10	39	플라스틱류	1,535	2,092	36.3

자료: 대외무역청(www.dtm.gov.tr)(순위는 2008년 금액 기준)

터키의 10대 수입품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상품분류	품목	2006	2007	증가율
1	27	광물성 연료	28,859	33,876	17.4
2	84	보일러, 기계류 등	18,999	22,581	18.9
3	72	철강	11,525	16,171	40.3
4	85	전기기계 및 장비	10,881	13,286	22.1
5	87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11,408	12,397	8.7
6	39	플라스틱류	6,918	8,684	25.5
7	71	보석, 귀금속류	4,406	5,904	34
8	29	유기화학품	3,642	3,994	9.7
9	30	의약품	3,036	3,523	16.1
10	74	구리류	2,469	3,146	27.4

자료: 대외무역청(www.dtm.gov.tr)

터키의 10대 수입품(2008년 1사분기)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상품분류	품목	2007년 1~7월	2008년 1~7월	증가율
1	27	광물성 연료	17,584	29,434	67.4
2	72	철강	9,179	15,388	67.6
3	84	보일러, 기계류 등	12,267	14,461	17.9
4	85	전기기계 및 장비	6,982	8,652	23.9
5	87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6,214	8,204	32.0
6	39	플라스틱류	4,925	6,063	23.1
7	71	보석, 귀금속류	3,671	3,052	-16.9
8	29	유기화학품	2,251	2,789	23.9
9	30	의약품	1,940	2,634	35.8
10	74	구리류	1,768	2,176	23.0

자료: 대외무역청(www.dtm.gov.tr) (순위는 2008년 금액 기준)

독일이 터키의 최대 교역 국가이며, EU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전체 교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외무역의 유럽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터키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계류, 섬유류(주로 의류) 등이며, 최근 들어 자동차 및 전자제품의 수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2008년 상반기에는 철강 제품의 수출 증가율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류의 경우 중국에 이어 EU 의류 시장 제2위의 공급국으로 현재 중국산 제품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주요 수입품은 광물성 연료, 기계류, 전기 기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철강, 플라스틱 제품 등이다. 특히, 광물성 연료의 경우 전세계적인 유가 상승 및 터키 경제 발전에 따른 국내 수요 급증에 따라 수입이 지속적으로 큰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한국의 대 터키 연도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7 월
수출 (증감률)	1,375 (58.8)	2,356 (71.4)	2,782 (18.1)	3,036 (9.1)	4,087 (34.6)	2,384 (1.7)
수입 (증감률)	78 (-37.7)	104 (33.2)	127 (22.5)	194 (52.5)	282 (44.9)	234 (44.1)
무역수지 (증감률)	1,297 (75.1)	2,252 (73.7)	2,655 (17.9)	2,841 (7.0)	3,805 (33.9)	2,150 (-1.5)

자료: 한국무역통계

한국의 대 터키 10대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06		2007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3,036	9.1	4,087	34.6
1	741	자동차	700	-5.9	680	-2.9
2	812	무선통신기기	285	88	440	54.5
3	214	합성수지	188	49.3	317	68.7
4	742	자동차부품	220	44.5	288	31.1
5	613	철강판	95	48.2	153	61.6
6	836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217	174.4	327	50.8
7	725	건설광산기계	194	11.2	211	8.5
8	721	섬유 및 화학기계	46	21.2	79	102.8
9	422	인조섬유장섬유사	95	4.8	103	7.9
10	711	원동기 및 펌프	39	-16.1	59	31.4

주: 품목은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

한국의 대 터키 10대 수출품목(2008년 1~7월)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07		2008.1~7 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계			4,087	34.6	2,384	1.7
1	741	자동차	680	-2.9	283	-29.2
2	742	자동차부품	288	31.1	282	121.9
3	613	철강판	153	61.6	209	139.4
4	214	합성수지	317	68.7	207	16.5
5	812	무선통신기기	440	54.5	154	-48
6	746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321	5,005.00	139	28.5
7	725	건설광산기계	211	8.5	119	-14.4
8	744	철도차량및부품	5	1,131.70	99	33,757.70
9	836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327	50.8	52	-77
10	422	인조섬유장섬유사	103	7.9	50	-16.1

주: 품목은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

한국의 대 터키 10대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06		2007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액			194	52.5	282	44.9
1	131	원유	0	-	96	-
2	441	의류	22	131.9	24	7.1
3	742	자동차부품	21	99.8	16	-22.4
4	15	기호식품	17	74.5	15	-13.2
5	129	기타비금속광물	6	-33.7	12	112.3
6	116	아연광	0	-	12	12,007.10
7	433	면직물	9	26.9	9	5.3
8	46	수산물가공품	7	4.4	7	-2.7
9	449	기타섬유제품	3	70.1	6	85.9
10	13	식물성물질	4	-47.1	5	17.5

주: 품목은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

한국의 대 터키 10대 수입품목(2008년 1~7월)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07		2008.1~7 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282	44.9	234	44.1
1	133	석유제품	0	26.6	65	-
2	441	의류	24	7.1	21	45.4
3	746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0	-96.2	19	-
4	742	자동차부품	16	-22.4	13	58.4
5	116	아연광	12	12,007.10	10	-13.3
6	15	기호식품	15	-13.2	9	-5.7
7	622	동제품	1	-83.1	9	1,360.40
8	129	기타비금속광물	12	112.3	7	-6.3
9	228	정밀화학원료	5	8.9	5	73.9
10	46	수산물가공품	7	-2.7	5	98.8

주: 품목은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

터키는 한국의 전 세계 수출대상국 중 2005년 23위, 2006년 25위에 이어 2007년에는 26위(금액 기준)를 기록하였다. 2008년 역시 수출 증가율 둔화로 순위는 26위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8년 7월 기준)

한국의 대 터키 수출 증가율은 2003년 58.8%, 2004년 71.4%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05년 18.1%, 2006년 9.1%로 다소 둔화되었다. 이후 2007년에는 다시 34.6%라는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들어 터키 내수 시장 위축 및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1.7%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2008년 7월 기준)

터키로부터의 수입은 아직 수출에 비해 미미한 편이나 증가율은 2005년 22.5%, 2006년 52.5%에 이어 2007년 44.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2008년 7월 기준에도 역시 4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이처럼 터키로부터의 수입은 그 규모 면에서는 미미한 편이나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 터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전자 부품 및 철강 제품 등이다. 2007년에는 선박 및 그 부품, 철강 제품, 섬유 기계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대 터키 수출을 이끌었고 2008년 7월 기준으로는 자동차 부품 및 철강 제품 등이 큰 폭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 터키 주력 수출상품인 섬유의 경우 2005년부터 섬유 쿼터가 폐지되어 수출에 다소 영향을 받고 있으나 합성수지 및 스판덱스 등 고급 직물의 경우 여전히 높은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이 터키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석유제품, 의류, 수산가공품 등이나 그 규모는 수출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3. 수입규제제도

가. 기본 관리 체계

터키의 수입관리제도는 원칙적으로 WTO협정과 EU와의 관세동맹, 그리고 다수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및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특혜 대우 등을 감안하여 매년 확정된다.

익년도 수입관리정책은 12월31일자 관보에 게재되어 1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현재 터키는 수입관리하의 모든 상품을 5가지 카테고리(List)로 구분한다. 즉 List 1에는 농산물, List 2에는 공산품, List 3에는 가공농산물, List 4에는 어류 및 어류가공품 그리고 List 5에는 유예품목(Suspension List)이 게재된다.

이와 같은 기본체계 하에서 터키정부는 시장접근품목의 수입관세가 WTO에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마다 리스트 1(농산물), 3(가공농산물), 4(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에 해당되는 일부 품목의 수입관세를 조정하고 있다.

또한 EU와의 관세동맹에 따른 조화를 도모하고 국내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EU와의 상호간 협력 하에 유예품목 리스트5가 작성되고 있다. 이 리스트로 인하여 국내제조업체들은 관세동맹 지역 내에서 충분한 수량이 생산되지 않는 원재료 및 중간재, 즉 일부 특수화학원료, 전자부품 등을 낮은 관세율이나 면세로 수입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터키는 각 국가들을 5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별도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 AB, EFTA, ISR, TUN, FAS, MAK, HIR, B-HER, B.S. ve Gaz. Ser.
(EU,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이스라엘, 시리아, 튀니지, 모로코,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팔레스타인 서안 가자지구)
2. E.A.G.U. : 최저개발도상국
3. O.T.D.U. : 특별 인센티브 부여 국가들
4. G.Y.U. : 개발도상국
5. D.U. : 기타 국가들(한국 포함)

나. 예외적 조치

터키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거나 일방적으로 관세 양허를 허용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및 최저개발도상국(E.A.G.U)들에 대한 관세 양허 내용도 리스트2에 별도로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1996년 EU와 관세동맹 체결시 터키가 민감 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에 대하여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여 EU의 역외공동관세와 조화를 도모하도록 된 협정에 따라 터키의 민감 품목 관세율은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되었다.

또한 공공의 안전, 질서 유지, 사람, 동물 및 식물의 건강보호, 환경 및 소비자보호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보(Communiqués)를 통하여 규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별도 적용을 받게 되는 사항들은 터키에서의 국제 박람회 참가, 전쟁 무기, 방사능 물질, 일부 통신 장비, 지도, 사후 유지 보수 서비스 보증 하의 수입, Route 보증 하의 자동차 수입, 항공기 생산에 사용되는 제품의 수입, 5년 미만 중고 제품의 수입, 폭발물, 솔벤트 및 석유 화학 제품,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제품, 오존층 훼손 물질, 일부 염색 제품, 비료, 화학무기 통제 협정에 수록된 제품 그리고 수입관세 징수 유예 품목 및 징수 유예가 예정되어 있는 품목들에 대한 수입을 규정하는 공보들이 발표되었다.

다. 기타 사항

2004년 4월부터는 비EU회원국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CE마크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품목 특성에 따라 A/S 규정, 위생검사, 품질검사규정 등에 의한 수입 제한이 있으며, 바이어와의 협상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또한 중고자동차는 관세동맹 체결 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D/A, D/P 거래방식을 통한 터키로의 수출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터키 세관에 도착한 화물은 수출자가 반송을 원할 경우에도 터키세관은 대금지급 여부와 상관 없이 터키수입자의 반송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화물 도착 후 특별한 사유 없이 45일이 경과하면 세관에서 몰수하여 공매절차에 부치게 된다.

라. 수입규제 품목

반덤핑 관세 부과 품목 리스트

CN Code	품목명	국가명	최종결정일(日,月,年) /관보번호	반덤핑관세율
5503.20.00.00.00	Polyester Synthetic Staple Fibers (not processed)	Korea, Rep. Of (1) Indonesia (1) INDIA Chinese Taipei, Thailand Belarus (1)	08.09.2006-26283 08.09.2006/26283 29.07.2003/25183 29.07.2003/25183 29.07.2003/25183 20.11.2004/25646	10% %6.2-%12 %16.5-%23.9 %6.4-%20.1 %15.8-%22.0 15%
55.13 55.14 55.15 55.16	Woven Fabrics of Synthetic and Artificial Stable Fibers	China, P.R.	19.06.2007/26557	%87

9105.21	Wall Clocks (battery accumulator or main powered)	China, P.R.	24.10.2007/26680	2.10 \$/ADET
5407.	Woven Fabrics of Synthetic Filament Yarn	China, P.R. Chinese Taipei, Korea, Rep. Of Rep. of Malaysia Thailand	01.08.2008-26954	70.44% %13.91-%30.84 %14.64-%40 %15.93 %8.67-%30.93
9613.20.90.00.00	Refillable Pocket Flint Lighters	China, P.R.	20.11.2004/25646	0.05 \$ / ADET
9613.10.00.00.00	Pocket Lighters, Gas Fueled, Non-refillable	China, P.R.	01.05.2008-26863	0.05 \$/ADET
9613.20.10.00.00	Pocket Lighters, Gas Fueled, Refillable with Electrical Ignition System			0.05 \$/ADET
9613.90.00.00.11***	Parts of Lighters			0.02 \$/ADET
6301.40 630190	Acrylic Mink Blanket	China, P.R.	01.08.2008-26954	4 \$/KG
6001.10.00.00.11	Only contained panel that pressed and this pressed panel can be cut and made blanket. Towel that rolled and cut			
6001.92				
5806.32.90.00.11***	Hook & Loop	China,P.R. Chinese Taipei,	13.12.2002/24962	3.86 \$/KG 1.83 \$/KG
9609 .10	Pencils with Leads of Graphiteand Pencils with leads of crayons encased in a rigid sheath	China, P.R.	14.01.2003/24993	3.16 \$/144 ADET
3904.10.00.00.19***	Polivilyn Chloride	Germany ABD Italy Romania	06.02.2003/25016 01.02.2008/26774	25\$/TON-45\$/TON 45\$/TON 25\$/TON-45\$/TON 25\$/TON-45\$/TON
4011.50.00.00.00	Bicycle Tyres	China, P.R., India Thailand	30.04.2003/25094	%33-%50 ** %20-%64 ** %100-%100 **
4013.20.00.00.00	Bicycle Tubes	Vietnam Chinese Taipei, SRI LANKA	27.09.2004/25596	30%-44% ** 30%-44% ** 50%-44% **
4011.40	Motorcycle Tyres	China, P.R. Thailand	30.04.2003/25094	%37-%100 ** %68-%100 **
4013.90.00.00.11	Motorcycle Tubes	Vietnam Chinese Taipei,	27.09.2004/25596	29%-49% ** 6%-21% **

8301.40.11.00.00 8301.40.19.00.00 8301.60.00.00.00	Cylindrical Door Locks (Ecluding Electromechanicals) Other Door Locks Excluding Electromechanicals) Only cylindir and case for door locks	China, P.R.	31.07.2003/25185	1.6 \$/ADET 1.77 \$/ADET 0.74 \$/ADET
2905.42.00.00.00	Pentaerythritol	China,P.R.	01.07.2005/25862	270 \$/TON
7010.20.00.00.00	Glass lid / cover	China,P.R.	20.12.2003/25322	0.91\$/KG
7315.81 7315.82	Stud-Link of Iron or Stee Welded Link Chain of Iron or Steel	China,P.R.	20.12.2003/25322	331 \$/TON 403 \$/TON
4007.00	Vulcanised rubber thread and cord	Malaysia	29.01.2004/25361	%11.6-%16.9
8302.10.00.00.00*** 8302.50.00.00.00 8302.42.00.00.00***	Other Hinge Hat-Racks,Hat-Pegs,Brackets and Similar Fixtures of Base Metal Base Metal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Furniture	China,P.R.	07.02.2004/25366	1.39 \$/KG 1.39 \$/KG 0.508 \$/KG
9608.10.10.10.00 9608.40.00.10.00	Ball point pens Propelling or sliding pencils	China,P.R.	02.03.2004/25390	0.066 \$/ADET 0.040 \$/ADET
9608.50.00.10.00	Plastic Type	China P.R.	02.08.2008-26955	0,066\$/Adet (9608.10.10.10.00 CIF), 0,040\$/Adet(9608.40.00.10.00 CIF)
8715.00.10.00.00 8715.00.90.00.00	Baby Pushchair Chassis	China,P.R.	01.08.2004/25540	8 \$/ADET 5 \$/ADET
5605.00	Metallized yarn, whether or not gimped,being textile yarn,or strip or the like of heading 5404 or 5405, combined with metal in the form of thread , strip or powder or covered with metal	China,P.R. Chinese Taipei Korea Rep. Of India	24.09.2004/25593	2.2 \$/KG
7312.10.81.00.00*** 7312.10.83.00.00*** 7312.10.85.00.00*** 7312.10.89.00.00***	Rope and Cable ()	China, P.R. Russian Federation	01.12.2004/25657 01.09.2007/26630	1 \$/KG 0.5 \$/KG

7312.10.98.00.00***				
5903.20.10.10.00	Textile fabrics impregnated with polyurethane-Leather substitutes	China,P.R.	05.02.2005/25718	1 \$/KG
5903.20.10.90.00	Textile fabrics impregnated with polyurethane- Others			1 \$/KG
5903.20.90.10.00	Textile fabrics coated ,covered or laminated with polyurethane - Leather substitutes			2.2 \$/KG
5903.20.90.90.00	Textile fabrics coated, covered or laminated with polyurethane - Others			2.2 \$/KG
8207.50.60.00.00	Interchangable tools for drilling metals with working parts of	China,P.R.	04.02.2005/25717	6 \$/KG
8207.70.31.00.19	high speed steel			10 \$/KG
9607.11	Slide Fasteners	China,P.R.	12.03.2005/25753	3 \$/KG
9607.19				
8528.72.20.00.00***	Color TV Receivers with integral picture tube	China,P.R.	28.07.2005/25889	CIF 50%
8528.72.31.00.00***				
8528.72.33.00.00***				
8528.72.35.00.00***				
8528.72.39.00.00***				
8528.72.51.00.00***				
8528.72.59.00.00***				
8529.90.65.90.00***				
8529.90.92.00.00***				
4011.10.00.10.00	New Pneumatic Tires, of rubber	China,P.R.	20.08.2005/25912	CIF %60
4011.10.00.90.11				
4011.10.00.90.12				
4011.10.00.90.13				
4011.10.00.90.19				
40.11.10.00.90.14				
40.11.10.00.90.15				CIF %87
40.11.20.10.00.11				CIF %60
40.11.20.10.00.12				CIF %87
40.11.20.10.00.19				
4011.20.90.00.11				CIF %60
4011.20.90.00.12				CIF %87
4011.20.90.00.19				

4011.61.00.00.00 4011.92.00.00.00				
4011.62.00.00.00 4011.63.00.00.00 4011.69.00.00.00 4011.93.00.00.00 4011.94.00.00.00 4011.99.00.00.00				
7315.20.00.00.00	Skid chain or motor vehicles, of iron or steel	China, P.R.	20.08.2005/25912	1500 \$/Ton
7408.11	Copper wire rod	Russian Federation	09.11.2005/25988	CIF %3
		Ukraine	08.06.2006/26192	CIF % 6.9
3907.60.20.00.00	Poly(ethylene terephthalate) having a viscosity number of 78 ml/g or higher	India Thailand Chinese Taipei, Korea Rep. Of Malaysia Indonesia China, P.R.	27.01.2006/26062	CIF %6.5
5801.	Woven Pile Fabrics And Chenille Fabrics (Other Than Fabrics)	China, P.R.	27.01.2006/26062	1.5 \$/Kg
8501.20.00.90.00	Universal Ac / Dc Motors of An Output Exceeding 37,5w	China, P.R.	04.05.2006/26158	1 \$/ADET
5402.47***	Polyster Flat Yarns	Korea Rep. Of	18.05.2006/26172	CIF % 5.2-10.9
4418.72.00.00.00 ****	Pre Finished Engineered Laminated Flooring (Floating or not)	China,P.R. Indonesia	08.07.2006/26222	CIF 35% CIF 25%
8415.10.90 8415.81 8415.82	Only wall-type split air-conditioners Only outdoor unit of wall-type split air-conditioners (except for outdoor unit of VRF systems) Only indoor unit of wall-type split air-conditioners	China, P.R.	26.07.2006/26240	CIF 25%
7307.19	Fitting	Brazil China,P.R. Bulgaria Indonesia India Derbia&Montanegro	07.09.2006/26282	400 \$/Ton 800 \$/Ton
				400 \$/Ton 253-400 \$/Ton 305-400 \$/Ton 400 \$/Ton 147-400 \$/Ton

		Thailand		
6802.23	Granites	China, P.R.	14.09.2006/26289	90 \$/Ton
6802.93				
4412.10.00.00.00***	Plywoodconsisting solely of sheets of wood, each ply not exceeding 6mm thickness	China, P.R.	20.10.2006/26325	240 \$/M3
4412.31.10.00.00***				
4412.31.90.00.00***				
4412.32.00.00.00***				
4412.39.00.00.00***				
5402.33	Polyster Textured Yarn	India Chinese Taipei, Korea Rep. Of	21.12.2006/26383	%6.8-%20.3 %9.9-%28.6 %33.7
4010.32.00.00.00 4010.34.00.00.00 4010.39.00.00.00	Endless transmission belts of trapezoidal cross-section(V- belts), other than V- ribbed	China, P.R. India Vietnam	31.03.2007/26479	5.04 \$/KG 3.50 \$/KG 4.55 \$/KG
6902.10.00.10.11 6902.10.00.10.12 6902.10.00.10.13 6815.91	-Chromite, Magnesite, and Chromite magnesite fire bricks; - Other Chose Magnesit,Dolomite or including chromite	China, P.R.	01.09.2007/26630	145 \$/Ton
5503.20	Polyster Fiber	China, P.R. Saudi Arabia	01.09.2007/26630	0.08 \$/KG 0.11 \$/KG
4411.13.90 4411.14.90 4411.92.90 4411.93.90	Fiber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	China, P.R.	30/07/2008-26952	1,60-2,40\$/m2
5402.31	Synthetic filament yarn, (pther than sewing thread), not put up for ratalil sale, including synthetic monofilament of less than 67 decitex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measuring per single yarn not more than 50 tax.	China, P.R.	05/09/2008-26988	CIF 37,4%

주 1: * 일몰재심 후 반덤핑관세 지속 결정

주 2: ** 첫 번째 반덤핑 관세율을 자전거 / 오토바이 타이어, 두 번째 반덤핑 관세율을
자전거 / 오토바이 튜브의 반덤핑관세율

주 3: *** 터키관세청에 의해 변경된 CN code

주 4: **** 제품 설명 변경에 따라 터키관세청이 CN code를 변경한 제품

주 5: 최종 업데이트 날짜 05.09.2008

참고: CN code: 터키 관세청에 의해 지정된 품목코드(HS code와 유사)

자료: 대외무역청

반덤핑관세 조사 진행 중 품목 리스트

CN Code	제품명	국가명	조사개시일(日,月,年)/관보번호
5402.33	Poliester texturized Fibers	China,P.r: Indonesia Malaysia Thailand	04.12.2007/26720
5806.32.90.00.11	Hook & Loop	China, P.R. Chineese Taipei	04.12.2007/26720
9609.1	Pencils with Leads of Graphiteand Pencils with leads of crayons encased in a sheath	China,P.R.	04.12.2007/26720
3921.90.60.00.11 3921.90.60.00.13 5407.20.11.90.00 5407.20.19.90.00	Balecloth weaving by Poietilen and polipropilen	China, P.R. Vietnam	11.01.2008/26753
55.08 55.09 55.10 55.11	Synthetic and artificial Fiber made by discontunied fibre	China,P.R Indonesia India	11.01.2008/26753
3904.10.00.00.19	Polivinil Chloride	Germany ABD Italy Romania	01.02.2008-26774
5603.14	Artificial Leather	China, P.R.	13.02.2008/26786
4011.40 4013.90.00.00.11	Motorcyle Tyres & Tubes	Indonesia Malaysia	20.03.2008/26822
4011.50.00.00.00 4013.20.00.00.00	Bicycle Tyres & Tubes	Indonesia Malaysia	20.03.2008/26822
3701.30.00.00.29	Aluminium product offset print tablet	China, P.R:	20.03.2008/26822
4011.50.00.00.00 4013.20.00.00.00	Bicycle Tyres & Tubes	China,P.R India Thailand	26.04.2008/26858
4410.12	Particle board and similar board of unworked or not further worked than sanded	USA Canada	14.06.2008/26906
5503.20.00.00.00	Synthetic staple fibres of polyesters	India Chinese Taipei Thailand	22.07.2008/26944
8301.40.11.00.00 8301.40.19.00.00 8301.60.00.00.00	Padlocks and locks of base metal(Door locks) Padlocks and locks of base metal(Others)	China P.R	22.07.2008/26944
5603.11.10.00.00 5603.11.90.00.00 5603.12.10.00.00 5603.12.90.00.19 5603.13.10.00.00 5603.13.90.00.19 5603.14.10.00.00 5603.14.90.00.00 5903.90.91.90.00	Nonwovens, whether or not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China P.R Iran Israel Italy Saudi Arabia	02.08.2008/26955
4011.40 4013.90.00.00.11	Motorcyle Tyres & Tubes	China,P.R Thailand	26.04.2008/26858

주: 최종 업데이트 날짜 05.09.2008

자료: 대외무역청

마. 비관세 장벽 주요 내용

1) 수입 허가

다음 품목들은 수입 시 터키상공부(소비자 및 경쟁보호 관리부)에서 발급하는 보증서 (Guarantee bond)를 통관절차과정에서 세관에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HS 코드	품 목 명
7321	철강제의 스토브, 레인지, 화상, 조리기(중앙난방용의 보조 보일러를 갖춘 것 포함) 바비큐, 화로, 가스풍로, 가열판 및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8403.10	중앙난방 보일러(화석 연료 사용)
8414.51.00.20.00) 8414.59.20.20.00) 8414.59.40.20.00) 8414.59.80.20.13,14)	팬
8414.60.00.10.00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cm 이하인 것)
8414.80.80.20.00	단지, 가정용, 팬이 부착된 필터용 환기후드
8415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들) (습도만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8415.90은 제외한다.)
8418.21) 8418.22.00.00.00) 8418.29)	단지, 가정용 냉장/냉동고
8419.11.00.00.00	가스가열식인 물가열기
8421.12	의류탈수기
8422.11.00.00.00	가정용 식기세척기
8429	자주식의 불도저, 앵글도저, 그레이더, 레벨러, 토양을 정돈시키는 기계, 스크레이퍼, 메카니컬셔블, 엑스카베이터, 셔블로우더, 탬핑머신 및 로드롤러
8433.61.00.00.00	조란, 과일 기타 농산물의 세정, 분류 또는 선별기
8450.11) 8450.12.00.00.00) 8450.19)	가정용 세탁기
8458	금속 절삭가공용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
8459	금속 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로서 드릴링, 볼링, 밀링, 나선가공 또는 탭핑용으로 사용되는 것(웨이타입 유니트헤드머신을 포함)-8458 제외
8460	디버어링,샤프닝,그라인딩,호닝,래핑,폴리싱 또는 기타 완성 가 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 연마재, 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메트를 가공하는 것(8461 제외)
8470.50	금전등록기
8471	자동차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 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8471.80;8471.90 제외)
8502	전기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8504.40.90.90.11	전기 정류기
8509.10	전기 진공청소기(건식 및 습식 모두 포함)
8509.30.00.00.00	주방용 쓰레기 처리기
8509.4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 또는 채소즙 추출기
8517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코드레스 핸드세트가 있는 유선전화기 및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전기통신기기를 포함); 및 영상전화기(8517.90 제외)
85.21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8525.20.20.00.11	수신기기를 갖춘 무선 송신기기
8525.20.20.00.12	수신기기를 갖춘 모빌링 무선 송신기기

위생관련 법규는 동/식물, 농작물, 육류 및 관련식품들, 음식물과 접촉하는 제품들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음식물과 접촉하는 생활 소비품의 경우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테스트를 거친 후 결과에 따라 허가함. 테스트는 보건부와 농림부 산하 안전검사청에서 시행한다.

의료기기 등 터키 국내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는 기계류의 수입통관절차는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나 국내생산이 많은 제품에 대한 수입 통관절차는 복잡하다. 특히, 중국산 제품들에 대한 좋지 못한 이미지로 인하여 극동지역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에 대한 통관절차도 까다롭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수입지역에 따라 통관절차의 기간이 달라지는데, 통관사들에 따르면 수입품목들은 3지역으로 나뉘어져서 진행된다고 한다. (극동지역 수입: 적색선, 유럽지역 수입: 황색선, 수입이 잘되거나 잘 알려진 기업들의 수입: 청색선). 적색선 구역은 조사관과 함께 가서 검사를 하지만, 황색선 구역은 단지 서류심사로 통관처리 되고 청색선 구역 또한 세관 신고서만 제출하면 통관 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 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각 세관(항구)마다 상기와 같이 통관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품 성질에 따라 관련 정부기관의 관리 증명서를 발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 환경청: 자연환경보호 관련한 제품
- 원자력부: 방사능 관련 제품
- 교통부: 경비행기 관련 제품
- 내무부: 폭발물 관련 제품
- 동력자원부: 석유 및 원유관련 제품
- 노동사회안전부: 건강 및 안전관련 제품
- 농림부: 비료관련 제품

2) 주류 라벨링 규정

주류에 대한 각각의 라벨링 및 라벨과 동일한 글씨체로 터키어 상세 정보를 요구한다.

3) 자동차 부품의 기술규격 승인

일부 자동차 부품은 CE 승인은 물론 터키 표준 규격 (TSE) 승인을 요구한다. 특히 원산지가 유럽이 아닐 경우 제품 기술, 품질, 안전과 관련된 검사외 추가적으로 터키 시장에서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의약품 승인

성분별로 담당기관이 나누어져 있으며 어느 한 기관에서라도 성분에 대한 불합격 판정을 내릴 경우 수입통관이 이루어질 수 없다.

5) 컨테이너 통관절차 중복요구

터키에 들어오는 컨테이너 등록 시 3개의 서류(등록, 변경, 반출)를 받으며, 어떠한 사유라 도 한 번 수입 신고된 컨테이너는 3개월 내에 무조건 재신고하여 연기 및 반출을 하여야 한다.

6) 폴리에스터 직물류 세관검사 강화

터키 정부는 현재 쿼터로 시행되고 있는 한국산 및 동남아산 폴리에스터 직물류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토록 요청했다. 또한 1998년 1월부터 직물류 수입 통관 세관을 종전 70여 개소에서 4개소로 축소하여 통관소요 기간이 1~2주 증가하였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터키는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겪고 있으며, 매년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터키 경제 성장의 불안요소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인도, 태국, 베트남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터키 내수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터키 정부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저가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품목은 대부분 중국을 중심으로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산 제품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등 CIS 지역의 수입품이 해당된다.

한국 제품의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 품목은 일부 화학섬유에 한정되고 있다. 섬유류의 경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제품들이 터키시장에서 내수생산품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섬유산업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 제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세 부과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지속적인 제소를 통해 반덤핑 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현재 터키는 EU 와 무관세 교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덤핑 관세 적용 품목들은 저가의 아시아산 제품외 유럽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도 열세에 놓이게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입규제 내역

품 명	HS 코드	유형	최초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5402.43*	반덤핑	'98.1.27	'99.11.30	- 관세율: 5.2~10.9% - '04.11 월 만료후 재조사 - '06.5.18 반덤핑관세 재부과 - 한국합성 5.7%, 효성 5.2%, 동국 무역 5.5%, 휴비스 5.5%, 도래이 새한 5.5%, 기타 10.9%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	5503.20	반덤핑	'99.3.4	'00.3.13	- 선경 11.9%, 삼양사 및 고향: 24.6% - '06.9.8 일몰재심 최종판정 지속 - (모든 업체 10%)
폴리에스테르 직조섬유사	5402.33	반덤핑	'99.3.4	'06.12.28	- '06.6.24 일몰재심 - 관세율:33.7%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직물	5407 일부	반덤핑	'99.11.1	'08.8.01	- 대광, 동흥무역, 동성무역, 덕동, 현마무역, 승우무역, 서광, 서광 무역, 성광, 선문, 을화: 14.64% = 기타 : 40%
금속드리사	5605	반덤핑	'04.2.7	'04.9.24	관세율: U\$2.2/kg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3907.6020	반덤핑	'04.12.9	'06.1.27	관세율: 6.5%

주: 2007 년부터 터키정부가 HS Code 대신 자체 코드(CN Code)로 변경함에 따라 일부 품목의 코드가 변경됨(5402.23->5402.47)

자료: 터키 대외무역청

5. 관세제도

터키는 1996 년부터 EU 와 관세동맹을 발효하여 양 국가 사이에는 약 93%의 교역상품이 관세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반면 제 3 국에 대해서는 EU 와 터키의 관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터키 역시 관세를 통한 수입제한 조치는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터키는 1996 년 EU 와 관세동맹 체결 시 제 3 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EU 기준에 맞추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터키는 1996 년 5.8%에서 2000 년 5%로 평균관세율을 조정해 왔고 2005 년 이후에는 EU 기준인 4.2%로 평균관세율을 재조정하여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과 농산가공품 그리고 일부 민감한 공산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높은 관세율을 통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농업부문에 있어서 특히 높은 관세율로 반입을 통제하고 있는 품목들로는 낙농 부문에서 터키 내 비중이 높은 양, 염소 등은 135%의 높은 관세로 보호를 받고 있다. 그 밖에 낙농 품은 48.6~140%, 식용채소 및 뿌리의 경우 감자(19.3%), 토마토(48.6%), 양파(49.5%) 등에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식용 과일의 경우에도 코코넛(30%)과 바나나(145.8%) 등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그 밖의 과일은 평균 16.8~37%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가공식품인 커피(13%), 차류(145%), 향신료(30%)도 보호대상이 되고 있다.

그 밖에도 곡물 중 쌀(12~45%), 밀(40~130%), 보리(85%), 옥수수(130%), 수수 및 메밀(40~50%)과 곡물 가루(40.5~54%) 등이 높은 관세로 보호되고 있다.

그리고 소시지(225%) 및 기타 육류 조제품(225%)도 보호대상이며 사탕수수(130%), 기타 과실 및 견과류(42.3~54.9%) 등도 보호를 받고 있다.

공산품 부문에 있어서는 의류(12%), 신발(17%), 유리제품(11%), 철과 비합금강(22.4%) 및 기타 제품(12~17%), TV 수신기(14%), 10 인승 이상 수송용 자동차(10~16%), 승용차(10%), 화물 자동차(22%)와 자전거(15%) 등이 민감 품목으로 높은 관세로 보호를 받고 있다.

터키의 관세율은 국가에 따라 5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으며 종류는 아래와 같다.

- AB, EFTA, ISR, TUN, FAS, MAK, HIR, B-HER, B.S. ve Gaz. Ser.(EU,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이스라엘, 시리아, 튀니지, 모로코,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팔레스타인 서안 가자지구)
- E.A.G.U. : 최빈개도국
- O.T.D.U. : 특별 인센티브 부여 국가들
- G.Y.U. : 개발도상국
- D.U. : 기타 국가들(한국 포함)

그러나 2006 년 12 월 30 일 개정된 관세율에 따라 일부 품목(일부 과일류·농산물, 담배 등)의 경우 4 가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1 군은 EU, EFTA 2 군은 마케도니아, 3 군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4 군은 기타국가(한국 포함)로 분류되어 있다. 1 군의 국가에 대한 관세율은 보통 0%이며 4 군의 적용 관세율이 가장 높다.

한편, 터키정부는 2003년 10월 관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관세법을 EU 기준에 부합 하도록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관세와 관련한 레드테이프(관료주의)을 줄이고 관세 벌금도 재조정되어 벌금 납부 통지 후 10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명문화했다.

일반적인 관세제도와는 별도로, 반덤핑관세를 통해 터키 산업의 보호가 필요한 산업(섬유, 경공업제품 등)을 보호하고 있으며, 그 외 통관 시 실시하는 참조가격제도(reference pricing) 등을 통한 수입제한조치를 감안한다면 실제 관세는 더 높다고 봐야 한다.

한편, 2004년 5월 1일부로 체코, 헝가리 등 중동구 유럽 10개국이 EU에 신규 가입함에 따라 이들 국가들과도 기존 EU와 맺었던 관세동맹의 효력을 확대하였으나 남사이프러스를 제외 시킴으로써 EU 집행위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다.

관세율 확인 방법: 터키 대외무역청 홈페이지(www.dtm.gov.tr)

6. 주요인증제도

가. CE 마크

터키는 EU회원국은 아니지만 수입되는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CE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EU가입 준비과정에서 모든 무역 시스템을 EU기준으로 맞추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이다.

2004년 초 시행된 CE인증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초기에는 수출입자간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 TSE 인증

TSE 인증은 한국의 KS마크와 같은 성격의 인증으로 터키 산업통상부 산하 터키 표준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의 종류이다. 대부분의 공산품은 CE인증 제출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로 TSE인증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CE인증을 획득한 제품의 경우 매우 간단한 절차를 거쳐 TSE인증을 받을 수 있다.

TSE 인증은 통관과정에서 수입업자가 TSE에 의뢰하여 받을 수 있으며, 한국업체가 미리 받지 않아도 된다.

7. 지적재산권

가. 개요

터키의 산업재산권 역사는 18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그 당시에는 특허권 및 상표권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였으나 시대 흐름에 따른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후진성을 면치 못한 바 있다.

터키 정부는 1995 년 6 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동 분야에 혁명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앞서 터키정부는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행정절차 시행을 위해 1994 년 6 월 24 일 터키특허청 (Turkish Patent Institute)을 설립한 바 있다. 1994 년과 1995 년 사이에 터키 정부는 2 개의 법률, 6 개의 시행법률, 2 개의 시행령과 5 개의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지적 재산권 법률을 대폭 정비하였다.

나. 특허법

1995 년 6 월 27 일 공포된 새 특허법은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발명 특허를 허가하며 보호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장 20 년이다. 의약품 및 제조에 관한 특허는 1995 년 1 월 1 일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실용실안 (Utility Model - 특허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독창성이 결여된 발명)에 대한 보호는 10 년이며, 실용실안의 하위 단계는 7 년의 보호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다. 산업디자인법

산업디자인은 5 년간 보호 받는 것이 원칙이나 4 회의 갱신을 통해 최장 25 년까지 보호 받을 수 있다. 동 법률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새롭고 독창적이어야 한다.

라. 원산지 증명법

동 법률은 천연자원, 농산물, 광물, 산업제품 및 공예품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원산지 증명, 지역적 표시로 정의된다. 동 법률에 따라 제품이 원산지 증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장소, 지역, 때에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증명이 있어야 함.
- 제품의 품질, 특성이 지역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이 증명 되어야 함.
- 제품, 생산, 생산과정이 지역적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마. 상표법

상표(Trademark), 서비스 표시(Service mark), 보증 및 집단표시(Guarantee & Collective mark)가 보호되고 있다. 보호기간은 10 년이며, 갱신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현지 진출 자국기업의 산업재산권 피해사례를 대부분 터키업체가 한국회사 상호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8. 통관/운송

가. 통관절차 흐름도

컨테이너 도착 시 화물 소유주는 3 가지 종류(A: Entry, B: 신고인, C: Exit)의 컨테이너 등록 서류(Entry Voucher)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한다. 세관에서 등록 절차 및 등록서류 번호 부여가 끝난 후 화물 소유주는 B(신고인) 및 C(Exit) 서류를 돌려받는다.

등록된 컨테이너는 서류에 등록된 날짜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반출되어야 하며 만약 반출이 불가능할 경우 화물 소유주는 만료일 이전에 세관에 불가피한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기간연장이 인정될 경우 해당 컨테이너는 최장 3 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나. 수입 신고

수입 신고 시에는 수입신고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Bill of Landing(endorsed by the importer)
- Cargo Manifest
- Certificate of Origin
- Commercial Invoice
- Consular Invoice
- Customs Cargo Declaration Form
- Customs Transit Document
- Equipment Interchange Receipt
- Import License
- Pre-shipment Inspection Clean Report of Findings
- Ship Arrival Notice
- Technical Standard/Health Certificate
- Sales Confirmation Contract
- Certificate of ownership
- Export License for Quota
- Packing List
- Insurance Policy
- CE 인증서: (2004 년 4 월부터 비 EU 회원국 수출품에 대해 적용, 대부분의 품목에 해당)
- TSE 인증서 또는 검사보고서 등 (대부분의 품목에 해당)

이외에도 터키세관은 수입자(수출자)에게 일부 서류에 대해 주한터키대사관 인증을 요구하기도 한다. 터키세관은 관보 25070 호(2003.04.05)를 통해 섬유직물 수입 단속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효시켰는데, 대상국가는 관세협정이 미체결된 일반국가(한국 포함)로 수입자는 일반국가에서 직물 수입 시 추가로 제직물 상세 설명서를 원산지 증명서와 함께 터키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터키세관은 동 서류를 통해 제조 (수출)원가를 추정할 수 있어 부 적절한 인보이스 가격을 제시할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수입자로 하여금 정확한 통관서류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다. 통관 소요기간

- 서류 준비: 약 18 일
- 세관 신고 및 검사: 약 2 일
- 항구 및 터미널 통관: 약 3 일
- 내륙 운송: 약 2 일
- 총 소요기간: 약 25 일

라. 주요 항구

Code	Entry Port	Code	Entry Port
00110	HOPA	00149	KARABIGA
00111	PAZAR	00150	SILIVRI
00112	RIZE	00151	TEKIRDAG
00113	SURMENE	00152	GELIBOLU
00114	TRABZON	00153	CANAKKALE
00115	VAKFIKEBIR	00154	ENEZ
00116	GORELE	00155	GOKCEADA
00117	TIREBOLU	00156	BOZCAADA
00118	GIRESUN	00157	MARMARA ADASI
00119	ORDU	00165	EDREMIT
00120	FATSA	00166	AYVALIK
00121	UNYE	00167	DIKILI
00122	SAMSUN	00168	ALIAGA
00123	GERZE	00169	IZMIR
00124	SINOP	00170	CESME
00125	AYANCIK	00171	KUSADASI
00126	INEBOLU	00172	GULLUK
00127	CIDE	00173	BODRUM
00133	YALOVA	00174	MARMARIS
00135	AMASRA	00175	FETHIYE
00136	BARTIN	00176	NEMRUT
00137	ZONGULDAK	00177	DATCA
00138	KARADENIZ EREGLI	00178	FOCA
00139	KARASU	00182	KEMER
00140	KEFKEN	00183	KAS
00141	SILE	00184	FINIKE
00142	IGNEADA	00185	ANTALYA
00143	ISTANBUL	00186	ALANYA
00144	IZMIT	00187	ANAMUR
00145	GEMLIK	00188	TASUCU
00146	MUDANYA	00189	MERSIN
00147	BANDIRMA	00190	ISKENDERUN
00148	ERDEK	00191	BOTAS

마. 컨테이너 비용 및 한국-주재간 운송소요기간

- 비용: 1컨테이너당 6,000~7,000달러
- 소요기간: 35 ~ 55일

바. 물품검사

세관에서는 화물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이 때 Sales Confirmation Contract, Certificate of Origin, Packing List 도 세관에 의해 검사된다. 물품검사는 보통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통제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된다. 통상 무작위로 검사하게 되나 평소 언더밸류, 덤핑수출 등으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쿼터품목의 경우에는 실제중량과 서류상의 중량이 일치하는지 까다롭게 물품검사가 실시된다. 또한 중고기계 통관 시에는 기계 제작연수가 터키에서 법률로 정한 일정기간을 초과했는지를 철저하게 검사하며 제작기한이 넘은 중고기계에 대해서는 통관을 불허하고 있다. 일부 의약품 및 전기용품은 터키 보건부나 관련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나 반입 허가서를 물품 검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관세 및 부가세 납부

수입물품을 인도하기 전에 수입업자는 관세와 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통상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면 물품검사 당일 수입물품 반출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3-4 일이 소요된다. 특히, 터키 산업통상부 산하 표준협회(TSE: Turkish Standard Institute / 유럽 CE 의 개념)나 보건부 허가서를 취득해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물품검사에서 통관 시까지 대략 2 주 이상 소요된다.

한편, 2004 년 들어 비 EU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CE 마크 획득을 의무화 하였으며, 통관 시 TSE(터키표준협회) 테스트를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품목이 CE 마크 없이 터키로 수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Red Line 이라는 이중 통관 심사대를 거치게 하면서 까다로운 세관 통관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환경 개황

터키는 1980년대 중반부터 외부지향 경제정책을 추진한 이래 외국인의 대터키 투자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비한 점도 많다. 터키는 외국인 투자촉진법(1954), 동 법 시행령(1995), 자유무역지대법(1985) 등으로 외국인 투자가에 대해 제도적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의 대터키 투자 시 내국인 고용의무, 국산원자재 사용의무, 수출의무 등 제한이 없으며 과실송금 및 자본금의 외화구좌 납입도 보장된다.

2006년 외국인투자업체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여 당초 19개에 이르는 과정을 3개로 줄이는 혁신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터키는 7,000만이라는 거대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EU와 관세동맹 체결, 중앙 아시아와 역사, 민족적으로 강한 연대가 형성되어 있어 중동 및 동구권에 대한 재수출 기지로서도 활용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경제성장은 2차례 지진 피해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한 1999년(-6.1% 성장), 외환위기에 따른 2001년(-9.5%성장)을 제외하고는 매년 4~5% 내외로 건실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05년 이후 2007년까지 8.4%, 6.9% 4.5%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면화, 양모, 식품, 광산물 등 원료를 활용한 산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면방, 봉제), 철강산업의 기반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 또한 여타 이슬람국가와

달리 근로자들의 인식이 상당히 서구화되어 있으며, 생산성도 아시아 개도국(중국, 인도 등)과 대등한 수준이며 노동조합의 활동이 한국에 비해 미미한 편이다. 현지 노동법은 사용자 위주로 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노동자의 권익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내국인 고용의무, 국산 원자재 사용의무, 수출의무 등 제한이 없고 유통업, 관광업 등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도 장려되고 있어 비교적 제도적으로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나. 터키정부에서 손꼽는 터키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들

1)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

터키는 동서양 및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동 및 중앙 아시아 지역에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시장으로도 진출 가능한 국가임.

2) 거대기업의 투자진출 가속

2000년 이후 11,000여 개 이상의 외국기업이 진출하였으며 특히 포춘지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 중 104개의 기업이 진출 중.

3)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지난 5년간(2002~2006년) 평균 경제 성장률 7%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 중임.

4) 거대한 내수 시장

인구는 7,000만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PPP(실질구매력지수) 기준으로 1인당 GDP는 10,000달러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음.

5) 숙련된 노동인력

비교적 숙련된 노동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6) 높은 품질 수준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품질수준을 이루어 내고 있음.

7) 거대한 에너지 공급원과 밀착

터키는 중동지역 및 카스피해의 원유,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천연가스가 서구지역으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함.

8) 정보통신 네트워크 보유

비교적 새로운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보유함.

9) 중앙아시아, 코카서스지역 진출 교두보로 유리

문화적, 역사적 유대관계로 인해 터키는 코카서스 지역과 중앙아시아의 터키계 공화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 중.

다. 투자 시 유의사항

터키는 숙련된 노동자와 관리자 등 현지 노동력은 풍부한 편이지만 과거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높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이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등 소수의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대도시 중심 지역은 인프라도 좋은 반면에 노동력의 임금도 높은 편이다. 여타지역은 임금은 낮은 수준이지만 질 좋은 노동력확보가 어렵고 인프라가 열악한 편이다.

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관료주의적 행정처리가 만연되어 있어 각종 행정 처리가 지연 되거나, 급행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시행령 등 세부행정처리 지침이 불투명하여 투자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투자계획을 실행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지 투자 진출 시에는 오랫동안 터키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교민이나 기진출한 한국 기업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현지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정해진 요율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인지도 또는 기타 요인으로 인하여 수수료를 고액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지 진출업체나 무역관으로부터 사전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외 언어문제, 인프라 낙후와 전기, 용수 등 국가 기간산업의 취약 등도 투자 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2008년 3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관한 법률이 터키 최고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현재는 터키 정부에서 법률 재정비를 통해 일부 제한 구역과 군사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다시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놓은 상태이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터키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2001년 금융위기로 인한 저가 매물의 출현으로 33억 달러를 기록한 후 2002년에는 6억 달러라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EU가입 문제가 호재로 작용하기 시작한 2004년에는 27억 달러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1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급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2006년에는 전년 대비 100% 가까이 증가한 약 200억 달러를 유치하였다.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되어 2007년에는 218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기록하였다. 2008년 7월에는 93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순조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투자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7 월
금 액	1,751	2,785	10,031	19,989	22,030	9,358

자료: 터키재무성, 터키중앙은행(유입기준, 부동산투자 포함)

국가별 투자동향을 보면 2007년의 경우 EU 및 미주가 전체 투자액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8년 7월에는 이들 국가들 외에 아시아 및 중동 국가의 진출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U의 경우 지리적 이점, 관세 부담 회피, 미국의 경우 중동,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마련을 목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 투자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1~7월
EU	563	1,027	5,006	14,489	12,773	5,182
기타 유럽	62	6	1,646	85	372	110
아프리카	0	0	3	21	5	82
미주	58	97	122	1,002	4,711	343
아시아 및 중동	60	60	1,756	1,927	1,373	1,894
기타	2	0	2	115	36	0
합계	745	1,190	8,535	17,639	19,270	7,611

자료: 터키 재무성, 터키중앙은행(부동산 투자 제외)

투자 건수 기준 국가별 순위

순위	국가	2006	2007	2008. 1~7월
1	독일	579	579	353
2	영국	463	463	158
3	네덜란드	260	260	192
4	미국	135	135	88
5	아제르바이잔	83	121	74
6	이라크	79	115	53
7	이란	115	108	78
8	중국	21	42	31
9	캐나다	27	34	14
10	한국	12	24	11

주: 순위는 2007년 기준

자료: 터키 재무성, 터키 중앙은행

업종별 투자를 보면 금융 등 서비스업종에 치중되어 있으며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Greenfield 투자는 아직까지 미흡한 편이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공장 설립 등 제조업 분야에서의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투자통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7월
농수산업 및 광업	15	79	47	128	344	127
제조업	448	190	785	1,866	4,202	2,684
전기, 가스 및 수도 공급	86	66	4	112	567	333
건설업	8	3	80	222	285	625
도소매업	92	72	68	1,166	169	56
교통, 창고 및 통신	2	639	3,285	6,696	1,116	95
금융업	51	69	4,018	6,957	11,663	3,202
부동산업	6	3	29	99	868	320
기타	37	69	219	393	221	169
계	745	1,190	8,535	17,639	19,435	7,611

자료: 터키 재무성, 터키 중앙은행(부동산 제외 신규투자)

외국기업의 투자는 주로 최대도시인 이스탄불과 인접도시 및 수도 앙카라, 제 3의 도시인 이즈미르 등 대도시 주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지역의 경우 인프라 부족,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터키 내에서는 터키 동남부 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터키 정부에서는 이들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 중에 있다.

터키에는 2000년 이후 11,000여 개 이상의 외국기업이 투자하였으며 대표적인 외국 투자 기업은 다음과 같다.

최근의 주요 외국인 투자 사례

시기	투자회사	국가	투자내용
2003.2	Bando Chemical Bando Europe GMBH Bando PTE	일본 독일 싱가포르	터키의 전동벨트 공장 인수 및 V-Belt 제조 시작
2003.2	Kellogg Brown & Rott Inc.	미국	식품업 진출
2003.2	Imperial Tobacco Co.	영국	마케팅 회사로 시작한 후, 2005년 4월 Manisa에 담배공장 설립 및 현재 Davidoff 담배 생산 중
2003.2	Hyundai Corporation	한국	터키 PCB 회사에 투자
2003.3	Bridge Oil Ltd.	영국	해운업 진출
2003.4	UIB Int. Ltd.	영국	보험업 진출
2003.5	Alenia Marconi	이탈리아	항공 및 공항의 전자시스템 산업 투자
2003.12	Danone Group	프랑스	터키업체 인수 및 식품업 투자
2004.2	Aria	이탈리아	터키 국영 GSM 사업자 Aycell 인수 및 AVEA로 개명
2005.4	Fortis	네덜란드/벨기에	터키 “Dis”은행 지분 89% 인수
2005.7	Kluber Lubricants	독일	윤활유 공장 설립 운영
2005.10	Toyota Boshoku	일본	Adapazari에 자동차 공장 설립 운영
2005.12	Oger Telecom Telecom Italia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Turkish Telecom 지분 55% 인수 (65억 달러 투자)
2005.12	Vodafone	영국	터키의 GSM 사업자 Telsim 인수
2005.12	General Electric Capital Corp.	미국	터키 Garanti 은행 지분 25% 인수
2006.10	Cisco Systems	미국	네트워크 기술제공 및 벤처기업 육성 기관 설립
2007.11	ArcelorMittal	룩셈부르크	터키 철강업체인 Borusan과 합작으로 열연제품 생산공장 설립
2007	ING	네덜란드	터키 Oyak Bank 매입(26억 7천만 불)

자료: 무역관 자체 조사

3. 우리기업 투자동향

양국 간 투자관계는 한국의 일방적인 對 터키 투자로 이루어져 있다.

- 한국의 對터키 투자(1987~2007 누계)
 - 신고건수(공동투자, 증액투자 포함): 총 117건, 387,731천 달러
 - 투자건수(송금건수): 총 168건, 305,763천 달러
- 터키의 對 한국 투자: 총 37건, 6,057천 달러(신고액 기준, 1996~2007년)

우리나라의 對 터키 투자누계액은 2008년 상반기 기준으로 투자신고기준 총 178건, 395,301천 달러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91건(금액기준: 315,014천 달러)로 전체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다.

투자지역은 대부분 이스탄불, 이즈미트, 부르사 등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한 마르마라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터키에 투자하는 한국기업들은 터키가 가진 7,000만 인구의 내수시장은 물론이고 EU 시장을 겨냥한 투자전략을 펴고 있다. 특히 터키는 EU시장에 근접하여 있으면서도 풍부한 노동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EU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지역이며, 실제로 터키는 수출의 60% 정도를 EU로 하고 있다.

최근 한국과 터키의 교역규모가 커지면서 자동차부품, 섬유 등을 중심으로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업체의 문의가 늘고 있으며, 한국의 기술 수준이 터키기업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국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희망하는 터키인들의 문의도 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對터키 투자는 당분간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터키 업종별 투자현황(1987~2008. 6월 말 까지 누계)

(단위: 건, 천 달러)

업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총계
신고건수	1	6	91	3	12	1	5	6	125
신고금액	230	29,000	315,014	2,044	47,410	500	550	554	395,301
투자건수	1	9	133	5	15	2	5	8	178
투자금액	217	14,250	257,623	2,044	37,204	500	550	429	312,818

주: 신고 건수- 공동투자, 증액투자 포함, 투자건수- 송금건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우리나라 주요 진출기업

회사명	모기업	업종	제품명	진출형태	종업원수	진출시기
CJ TUR YEM SAN. VE TIC. A.S	CJ	제조업	배합사료	단독법인	12	2004
LG Philips Lcd	LG필립스	제조업	LCD 판넬	연락사무소	4	2005
LG Electronics Inc. ISTANBUL Liason office	LG전자	제조업	가전제품	연락사무소	6	1985
LG-Arcelik	LG전자	제조업	에어컨	합작법인	334	2000
LG Chem, Ltd. Istanbul Office	LG화학	제조업	화학제품	연락사무소	4	2005
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 ISTANBUL OFFICE	대우 인터내셔널	도/소매업	전품목	연락사무소	4	1956
Maysan-Mando	만도	제조업	자동차 부품	합작법인	180	1997
SAMSUNG CORPORATION ISTANBUL OFFICE	삼성물산	도/소매업	전자, 철강, 화학	연락사무소	9	1986
Samsung Electronics Istanbul Liaison Office	삼성전자	제조업	전자제품	연락사무소	10	1984
Assan-Hanil	한일이화	제조업	자동차부품	합작법인	304	1996
OCI Corporation Istanbul Office	OCI상사	도/소매업	화학제품	연락사무소	3	1999
CAS Elektronik Sanayii ve Ticaret A.S.	카스	도/소매업	전자저울	단독법인	28	1992
Kimsoy	(주)경인양행	제조업	염료	합작법인	38	1997
Hankook TIRE LIAISON OFFICE IN ISTANBUL	한국타이어(주)	제조업	타이어	연락사무소	4	2004
HYUNDAI ASSAN OTOMOTIV SANAYI VE TICARET A.S	현대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합작법인	1616	1995
HYUNDAI CORPORATION ISTANBUL OFFICE	현대중합상사	도/소매업	조선, 플랜트, 기계 등	연락사무소	5	1986
HYOSUNG CORPORATION ISTANBUL OFFICE	효성	도/소매업	섬유	연락사무소	6	1991
HYOSUNG ISTANBUL TEKSTIL LTD.STI.		제조업	섬유	단독법인	232	2007
KOREAN AIR ISTANBUL REGIONAL OFFICE	대한항공	서비스업	항공 서비스	연락사무소	4	2006
HYUNDAI HEAVY INDUSTRIES ISTANBUL LIAISON OFFICE	현대중공업	제조업	건설기계	연락사무소	3	2006
KUMHO TIRE LIAISON OFFICE IN ISTANBUL	금호타이어	제조업	타이어	연락사무소	2	2006
IL JIN ELECTRONIC LTD	일진전기	제조업	에어컨 부품	단독법인	65	2005
KT&G Tutun Mamulleri Sanay ve Ticaret A.S	KT&G	제조업	담배	단독법인	21	2006
Dai Yang Metal Co. Ltd	대양금속	제조업	스테인레스강판	단독법인	10	2007
HOWON SANAYI VE TICARET A.S.	호원	제조업	자동차 차체	단독법인	-	2007
TEKNO TAKIM MAKINA VE KESICI TAKIM SANAYI TIC.A.S.	YG-1	제조업	절삭공구, TOOL HOLDER	합작법인	-	2007

자료: 무역관 자체 조사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개요

터키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 외국인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 국제 기준에 따른 투자 및 투자자의 의미를 정의, 승인제가 아닌 신고제 구축을 위한 기존 정책의 일환으로 FDI 법을 발표하였다.

나. 투자 장려분야

터키의 기본적인 투자정책은 내외국인 동등 대우이다. 다만, 일부 산업은 국가독점으로 지정되어 있어 진출이 제한되나 관광, 교육, 보건, 유통 등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도 보장된다. 실제로 내국인 고용의무, 수출의무, 국산 원자재 사용의무 등 제한이 없으며 과실 송금도 보장되며 자본금의 외화구좌 납입도 보장된다. 외국인 투자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공단을 적극 조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주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터키 정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분야보다 투자지역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지역을 크게 3 개(개발지역, 일반지역, 개발장려 우선지역)로 나누어 이스탄불(인근지역 포함), 앙카라, 이즈미르 등 개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일반지역, 개발장려 우선지역)에서는 모든 종류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유 무역 지대에서는 아래의 분야에 대한 투자 시에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 연구개발 투자
- 환경보호 관련 투자
- The High Commiss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및 TUBITAK(The Scientific and Technical Research Council of Turkey)가 선정한 고급기술 투자
- 지역 불균형 개선이 목적인 투자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외국인 투자가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어서 이 분야도 투자진출 검토 대상이다. 1996 년 터키는 EU 와의 관세동맹 체결을 계기로 세계 최대경제 경제블록인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CIS 지역 및 중, 동구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세계 10 위권의 해외 직접투자(FDI) 유치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 투자 제한분야

터키는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 라디오 TV 방송(방송법 Law No: 3984)
 - 라디오 및 TV 방송국 관련, 외국인 지분은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EU에서 2009~2013년까지 외국인 지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높아질 것으로 전망.
- 국내 민간 항공(항공법 Law No: 2920)
 - 터키 내에서의 승객, 화물 및 우편의 수송은 터키 국적의 항공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함.

- 국내해운(해운법 Law No: 815)
 - 터키 내에서의 승객 및 화물 수송은 터키 국적의 선박을 통해서만 가능함.
 - 해운업(선박 견인, 항만 서비스 등)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 및 해상무역, 수산업 관련 업무 또한 터키 국민들만 수행이 가능함.
 - 예외적으로 터키 국적 선박에 없는 특수 목적 선박의 경우 외국 선사들이 최소 2년간 운영할 수 있는 허가 취득이 가능함.
- 선박소유(무역법 Law No: 6732)
 - 터키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중 선박을 소유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사회 의 과반수 이상이 터키 국민이어야 가능함.
- 전화 및 전보 서비스(통신법 Law No: 406)
 - Turk Telekom의 민영화 계획에 따라 2004.6.16 일부로 투자제한 해제됨.
 - 외국인도 통신 분야의 지분을 제한없이 소유할 수 있으나, 다만 이사회 구성원 중 1명은 터키정부에서 추천하는 인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지분은 보유하지 않고 투표권만 보유)
- 정부조달(정부조달법 Law No: 4734)
 - 정부조달 관련 입찰시 외국제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보다 터키산 제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 낙찰될 가능성이 높음.
- 수산업(수산물법 Law No: 1380)
 - 수산물 채집, 낚시 등의 권한은 터키 국민에게만 부여됨.
 - 양식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 제한이 2003.7.22 일부로 해제됨.
- 요트 선착장(관광 촉진법 Law No: 2634)
 - 요트 선착장을 소유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은 터키 국민 또는 터키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함.
- 인력알선회사(고용법 Law No: 4904)
 - 터키 국민만 인력알선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민간 경호서비스 회사(사설 경호 서비스법: Law No : 5188)
 - 터키 국민만 인력알선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광산, 석유, 전력, 천연가스의 경우 특별조항에 따라 투자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함.
- 터키가 가입한 국제 조약상에서 외국에 대해 제한적인 시장개방을 밝힌 기타 분야

라. 투자 인센티브

터키의 투자지역 구분

지역구분	주요지역
개발지역	이스탄불 및 근교, 이즈미르, 앙카라, 부르사, 안탈라, 아다나
일반지역	터키 서부 및 중부
개발장려 우선지역	터키 동부, 남동부, 중동부, 북부

- 인센티브 취득조건
 - 개발지역 및 일반지역: 40만 터키리라(약 35만 달러) 이상 투자
 - 개발장려 우선 지역: 20만 터키리라(약 17만 달러) 이상 투자

터키는 국내 및 외국기업에 대해 차별 없이 동일한 투자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으며, 세금 인센티브와 비세금 인센티브로 구분된다.

투자 인센티브 종류

- 관세 및 기금 면제
- 부가세 면제
- 투자대출 지원
-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면제
- 전기세 지원
- 토지 무상제공
- 연구개발 지원

또한 투자지역과 투자규모, 그리고 기타사항에 따라 지원 가능 인센티브가 결정된다.

인센티브 항목들은 통상 일반 지역, 개발장려 우선지역 투자 시 지원되며 이스탄불 등의 개발지역에서는 산업공단에 투자를 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마. 투자인센티브 항목별 내역

1) 관세 및 기금 면제

투자 목적인 수입 기계 및 장비에 한하며 사전에 GDFI(General Directorate of Foreign Investment)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자재 및 중간재는 제외된다.

2) 부가세 면제

투자 목적으로 수입 또는 내에서 구매하는 기계 및 장비에 한하며 사전에 GDFI(General Directorate of Foreign Investment)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투자대출 지원

개발 장려 우선지역 투자, 중소기업 투자, 연구개발 투자, 환경 투자에는 투자 대출에 따른 이자를 지원한다.

4) 개발 장려 우선지역 투자 인센티브

신규 고용 직원 급여의 소득세 80-100% 면제, 신규 고용 직원의 사회보장세 80-100% 면제, 신규고용 직원 수에 따라 터키 재무성이 사용 전기세의 20 - 50% 지원(이상 2008년 12월 말까지 적용), 공유지 투자용지 무료 할당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5) 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

1~250명의 고용인 또는 100만~2,500만 터키리라(86만~2,174만 달러)의 매출액 또는 자산가치 규모의 기업을 설립할 경우 관세 및 기금 면제, 기계 및 장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와 이자 지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6) 연구 개발 지원

TUBITAK(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Council of Turkey)에서는 제품 컨셉 개발, 기술 실용성 조사, 테스트 제품 생산, 판매 후 발생하는 제품 디자인 문제 해결 등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며, TTGV(Turkish Technology Development Foundation)에서는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자본금을 대출해준다.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투자형태별 특징

1)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5인 이상의 주주가 참여해야 하며, 최소 자본금은 5만 터키리라 (약 38,500달러)이다. 이사회 구성은 최소 3인이며 주주들에 의해 선출되거나 정관에 의해 지정된다.

2)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발기인은 최소 2인에서 최대 50인으로 구성되며, 최소 설립 자본금은 5,000터키리라(약 3,850달러)이다. 단, 금융업과 보험업에는 진출할 수 없다. 지정된 경영인이 회사 전권을 위임 받으며 이사회는 없다. 회사 경영방침은 주주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3) 지사(Branch office)

외국기관의 지사는 외국 모회사 소속으로 공식적인 지사임을 명시해야 하며, 외국의 은행 및 보험회사의 지사일 경우에는 별도로 정해진 규정을 따라야 한다. 또한 외국기관의 지사인 경우에는 최소자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업활동으로 얻는 수익은 터키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나 한국과 이중과세 방지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에서 세금 납부 시 터키에 납부의무가 없다.

4)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상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외국인투자국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Investment, Undersecretariat of Treasury) 의 승인을 얻은 후 터키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나. 진출형태별 설립절차

1) 법인

외국 법인 설립 절차는 기본적으로 내국 법인 설립절차와 동일하다.

1. 회사 정관 공증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상업등기소(Trade Registry Office) 제출
3. 세무서(Tax office) 등록
4. '상업등기관보(Trade Registry Gazzete)'에 지사 등록내용이 공지된 이후 본격적인 영업활동

2) 지사

지사 설립은 터키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후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상업등기소(Trade Registry Office)에 등록해야 함.

1. 필요서류 터키 산업통상부에 제출
2. 영업활동을 위해 상업등기소에 필요서류를 제출
3. 세무서 등록
4. '상업등기관보(Trade Registry Gazzete)'에 지사 등록내용이 공지된 이후 본격적인 영업 활동

3)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 설치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1. 아래 필요서류를 외국인투자국(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Investment, Undersecretariat of Treasury) 제출
2. 적법한 서류를 갖추었을 경우 5일내 승인
3. 지사 설립 후 1달 내 세금사무소(Tax Office)에 등록해야 함.

4) 공장설립 절차

터키 현지법으로 세워진 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나 실제 등기소에서는 외국인 투자 회사로 하여금 외국인투자국의 특별인가를 받아오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인가는 투자 회사의 원래 계획 내의 투자인 경우 쉽게 얻을 수 있다. 외국인(법인)은 시외지역 중 마을 안이나 군사 구역 내의 토지는 취득할 수 없다. 외국 기업이 외국인 투자국으로부터 공장 건설이나 기존시설의 확장허가를 받은 다음, 관련 지방 정부로부터 일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 및 관련허가를 할 때 지방정부는 우선 그 시설이 도시계획의 구역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보통 적용되는 기준은 합리적이며 아직까지 허가를 얻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정부와의 협조는 여러 가지 서비스와 필요한 인프라 시설을 구비하는데 필요하다. 만약, 투자가 산업지역이나 자유무역지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건축 허가가 더욱 쉽게 주어지는데 그 지역을 관리하는 기관의 허가 또한 필요하다.

일단 전체 계획에 대해 심의 후 통과되면 건축 및 소유, 운영허가가 따로 필요하다. 이런 허가를 얻는 데 걸리는 기간은 지방정부 관계자와의 개인적 친분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이런 문제를 현지 건축업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다만, 2008년 3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관한 법률이 터키 최고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법적 공백을 우려하여 6개월간 유보해 놓은 상태로 현재 터키 정부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터키 정부의 동 법률 마련 전까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투자형태별 설립신청서류

- 법인 (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 회사정관 공증: 공증을 받은 회사정관 3부(원본 1부 포함)를 공증일자 기준으로 최소 15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들과 함께 상업등기소(상업등기소는 지역별로 회사 설립 시 등록을 하는 곳으로 대체로 해당지역 상업회의소가 역할을 수행)에 제출
 - 자본금 납부확인 증명서(은행 영수증)
 - 소비자 보호기금 납부증명서(회사자본금의 0.1%를 소비자 보호기금으로 납부한 은행 납부증명서)
 - 대표자 서명 신고서 및 여권 사본(공증본)
 - 실제 주주의 사진 및 여권 사본: 주주 전체에 해당
- 지사
 - 산업통상부 제출용 서류
 - 지사설립신청서(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회사명, 국적, 설립일자, 주소, 자본금, 영업분야 등 필수 기재)
 - 본사의 지사 설립 결의서 공증본
 - 회사 정관 원본 공증본
 - 본사의 설립 및 영업활동 증빙 서류
 - 본사의 대표자에 대한 위임장
 - 대표자 서명 신고서 및 여권 사본(공증본)
 - 터키상업등록규정 준수 서약서
 - 상업등기소(Trade Registry Office) 제출용서류
 - 상업등기신청서
 -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지사 설립 허가서
 - 지사 대표자에 대한 위임장 공증본
 - 본사에서 발행한 지사대표자 승인 및 직위 승인서
 - 연락사무소
 - 본사의 조업원 수 및 연지출 추정치를 증빙할 수 있는 'Certificate of Activity (영업 활동증빙)'원본
 - 본사의 영업활동 보고서 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본사에서 발행한 터키 연락사무소 대표자에 대한 승인서
 - 연락사무소 설립을 법적으로 진행할 사람에 대한 위임장

라. 관계 기관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각종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터키 공공기관에 문의하는 방법과 사설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는 재무성 산하의 외국인투자국(GDFI: General Directorate for Foreign Investment)과 외국인투자가협회(YASED: Foreign Investors Association of Turkey)가 있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문서로 문의할 수 있으며 시간이 다소 걸릴 수는 있지만 웬만한 문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절차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법률자문이나 서비스는 투자관련 변호사나 법률 회사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투자절차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행정업무가 대부분 터키어가 필요하며 현지 변호사나 브로커가 아니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들 변호사나 회계사 혹은 브로커를 활용하고 있다.

투자신고에서 회사설립 전 과정을 변호사 등 전문가에 의뢰할 경우 업무량에 따라 편차가 심하지만 보통 5,000달러 정도가 소요되며, 연락사무소의 경우는 통상 2,000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또한 전문가를 물색할 경우 2-3명 정도로부터 견적을 받은 후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하며, 기 진출 한국기업들로부터 우수한 변호사를 소개받는 것이 좋다.

□ 공공 기관

- 재무성 산하 외국인투자국(GDFI: General Directorate for Foreign Investment)
 - 전화: 90-312-212-5877 / 팩스: 90-312-212-5878
 - 홈페이지: www.investinturkey.gov.tr
- 외국인투자가협회(YASED: Foreign Investors Association of Turkey)
 - 전화: 90-212-272-5094 / 팩스: 90-212-274-6664
 - 이메일: yased@yased.org.tr
 - 홈페이지: www.yased.org.tr
- 대외경제관계위원회(DEIK: Foreign Economic Relations Board)
 - 전화: 90-212-339-5000/270-4190
 - 팩스: 90-212-270-3092
 - 이메일: info@deik.org.tr
 - 홈페이지: www.deik.org.tr
- 터키상공회의소연합(TOBB: The Unions of Chambers and Commodity Exchanges of Turkey)
 - 전화: 90-312-413-8000 / 팩스: 90-312-418-3268
 - 이메일: info@tobb.org.tr
 - 홈페이지: www.tobb.org.tr
- 중소기업개발청(KOSGEB: Small and Medium Industry Development Organization)
 - 전화: 90-312-32-5425 / 팩스: 90-312-230-4430
 - 이메일: bilgi@kosgeb.gov.tr
 - 홈페이지: www.kosgeb.gov.tr

□ 외국인 투자관련 전문 법률 회사 명단

회사명	홈페이지	비고
Pekin & Pekin Int'l Law Firm	www.pekin-pekin.com	영어상담가능
Pekin & Bayar Law Firm	www.pekin.com.tr	
Bozat & Dokmeci Law Firm	www.bozat-dokmeci.av.tr	
Yarsuvat Law Firm	www.yarsuvat.com	
Sahin Law Firm	www.sahinlawfirm.com	

6. 투자입지여건

터키의 외국인 투자는 대부분 이스탄불과 인접도시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터키 전체인구의 1/7 이상이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에 집중되어 있을 정도로 동 지역이 터키 경제의 중심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즈미트(Izmit), 부르사(Bursa) 등 이스탄불 근교 도시들에 주요 산업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 연관 효과를 볼 때도 이들 지역에 투자 하는 것이 유리하다.

터키의 3 대 주요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전자, 섬유류의 경우 이스탄불 근교에 주요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경우 이즈미트 지역, 전자의 경우 이즈미트, 게브제 지역, 섬유류의 경우 부르사 지역이 가장 대표적인 투자 유망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이스탄불 근교 지역은 대부분의 지역이 배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류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 외에 투자가 유망한 지역으로는 터키 제 3 의 도시이자 에게해 지역 최대 도시인 이즈미르 (Izmir)가 있으며, 품목에 따라서는 터키 내륙이 유리할 경우도 있지만 극히 제한적인 품목에 해당된다.

다만, 터키인근 중동지역으로의 수출을 염두에 둔다면 터키 남동부 지역으로의 투자도 고려할 수 있다. 남동부 지역의 경우는 인건비는 물론 공장부지 등 각종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높지 않으며, 이라크, 시리아, 중앙아시아 등으로의 진출 여건이 우수하다. 그리고 남동부 지역의 경우는 개발우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인센티브의 혜택도 많은 장점이 있다.

한편, 터키의 경우 지역마다 다양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대부분 경제 중심지인 이스탄불 및 인근지역을 선호하고 있어 지방의 경우 외국인투자에 있어 다소 소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각 산업 단체별로 특정 지역을 산업단지화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7. 노동관리

가. 노동법 주요 내용

터키의 노동 관련 법규는 노동법(법률 제 1475호), 노동조합법(법률 2821호), 노동 쟁의조정 법(법률 제 2822호) 등이다. 노동법은 고용계약서 체결에서 임금지급, 휴가기준, 퇴직에 이르는 제반 사항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서에 의한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노동쟁의조정법은 단체 협상, 파업, 직장폐쇄를 다루고 있다. 교사, 공무원, 군무원, 경찰은 노동조합을 결성 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에서 특이한 것은 회사들은 공장지부보다는 전국적인 조합의 지도부와 협상을 벌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편, 경영자협회의 회원가입은 협회가 자주 단체협상에서 고용주를 대표하거나 고용주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지나 가입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터키에서 사무직 근로자는 노조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은 자유다. 즉, CLOSED SHOP, UNION SHOP등의 강제규정은 없다. 터키는 사업장 단위노조-산업별노조-전국노조연합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전국 노조연합은 TURK-IS(터키 노동 조합 연맹), HAK-IS(이슬람노조), DISK(혁명노조연합) 등 3개로 나뉘어 있으나 회원수(168만 명)나 역사 면에서 TURK-IS가 절대적인 지배력을 갖고 국제회의에 터키 노동 조합을 대표하여 참가하고 있다.

터키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사회보장법(법률 제506호)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 보장 체계의 적용을 받는다. 사회보장제도는 유럽국가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회보장 병원에서의 무료진료와 약간의 연금제도이다. 실업보험과 관련 근로자는 급여의 1%를, 터키 정부와 고용주는 급여의 2%를 실업보험료로 납부한다. 이를 통해 터키 정부는 실업자에게 실직 직전 4개월 동안 1일 평균 급여의 50%를 실업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최장 300일 동안 지급한다. 출산 및 산후휴가는 3개월이며 출산 직원이 출산 후에도 전임 직책을 유지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질병 치료 중 보수규정은 없다. 조제 처방을 제외하고 건강검진은 사회보장병원에서 무료로 제공되는데 시설이 낙후되고 매우 혼잡하다.

근로자는 근무일 기준 9,000일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남성은 60세, 여성은 58세 이후에 퇴직하여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동 규정은 2035년까지 유지되며, 2048년에는 남성 및 여성 모두 퇴직 연령이 65세로 조정될 예정이다. 한편 모든 고용주는 사업개시와 동시에 관할 사회보장기금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고용주가 기준 급여의 21.5%, 근로자가 15%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를 매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고용주가 36.5%를 일괄 납부한다.

나. 채용 / 해고 조건

일반 근로자는 큰 어려움 없이 채용할 수 있다. 일부는 지역고용사무소를 통해 채용되나 대부분 회사는 공장 정문에 채용광고를 게재하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 또는 지역신문광고를 통해 채용한다. 일부 다국적기업은 여름 방학기간 동안 학생들을 인턴사원으로 고용하고 졸업 후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정식 채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력이 있는 간부직원의 채용은 용이하지 않다. 국제수준급의 잘 훈련된 관리자들은 있으나 그들은 임금은 낮아도 승진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외국기업보다 터키 일류회사를 선호하는 편이다.

고용계약은 고용된 기간 동안 유지하거나 또는 일방의 의지에 따라 해지 가능하다. 후자의 경우 고용종료의 고지(해고 예고)기간은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상이하다. 고용주의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나 근로자의 정당한 사유 있는 퇴직 또는 군복무, 여성의 결혼 등을 위한 퇴직 시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퇴직수당지급액은 근속연수에 1개월치 임금을 곱한 금액에 근무 연수에 따라 구직 기간 동안의 급여(최장 8주)를 합한 금액이다. (근속연수 X 1개월치 임금 + 구직기간 동안 급여) 정부에서는 퇴직수당계산에 기준이 되도록 최고 월임금액을 정하며 매년 2회에 걸쳐 이 한도를 조정하고 있다. (2008. 7.1~2008.12.31 퇴직금 계상시 최고 임금액: 2,173.19 터키리라, 구직기간 동안 지급 급여의 최고 임금액: 4,151.70터키리라) 근로자의 실제임금이 이 금액을 상회하더라도 퇴직수당 계상시 정부고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최저 임금, 평균 임금 등 노동관련 통계

최저 임금은 정부, 근로자, 고용주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이것이 노동 시장의 최저 임금 수준의 기준이 된다. 최저임금은 1년에 2차례 조정되었다가 1차례 조정되는 등 변동되었으나 2007년부터 다시 1년에 2차례 조정되고 있다.

평균 임금의 경우, 일반노동자는 400~600달러, 엔지니어(중견기술자)는 900~1,500달러, 중간 관리직 1,900~3,500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회사의 노동자는 일반 터키 회사보다 높은 임금을 기대한다. 또한 지역별 임금차이가 커서 이스탄불 지역의 인건비 수준은 다른 지역 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터키에서는 임금인상이 노사간의 주요 현안 사항이 된다. 임금 인상 기준은 인플레이션율이나 실제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율에 미치지 못해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을 근로자들이 감수하는 경우가 있다.

라. 노무 관리 유의 사항

임금인상은 보통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터키에서 식비, 교통비 지급은 일반적이며 결혼, 출생, 질병, 사망 시 재정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회사는 터키 회사가 제공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임금 구조를 단순화하고 회계상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부대편익 관련 지출을 임금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터키의 대기업에서 보너스 지급은 대체로 일반적이며 연말보너스, 가족수당, 휴가나 종교 명절 전에 상여금 지급 등이 단체협상에 따라 정해진다. 석유산업과 같은 고수익 산업은 보너스로 6개월치 월급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도 한다.

법정 근무 요일은 월요일에서 토요일이며 평균 근무 시간은 주당 45시간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근무하고 2일간은 휴일로 한다. 초과 근무는 매년 90일에 하루 3시간(즉 연간 27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지하 작업에서는 초과 근무가 허용되지 않는다. 초과 근무수당은 주중의 경우 50%, 일요일과 기타 휴일의 경우 100%의 프리미엄을 적용한다. 초과근무 사용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유급휴가는 근무연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5년 근무: 14일, 6~15년 근무: 20일, 15년 이상 근무: 26일을 주도록 되어 있다. 법정휴일은 국경일, 종교휴일, 신년 등으로 평균 13일이다.

분야별 취업자 비중은 농업 24%, 제조업 21%, 건설업 5.5% 서비스업: 49.5%를 나타내고 있고, 2008년 상반기 기준 15세 이상 총 노동가능인구는 22,793 천명이고 실업자 수는 2,237 천명으로 실업률은 9.0%를 보이고 있다. (자료: 터키 통계청).

8. 조세제도

터키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법인세 납부기한은 익년 4월 말까지이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재무성이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은 5년간 세무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 탈세기업체는 탈세액의 3배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터키는 현재 총 67개국(보스니아, 레바논,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카타르, 남아공 등 의회 비준 후 발효를 기다리는 국가 6개국 포함)과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맺고 있으며, 한국과는 1986년 3월 27일 발효되어 1987년 1월 1일부로 이중과세 방지가 적용되었다.

명목 법인세율은 20%이나,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율이 10%로 실질 법인세율은 22%이고 부가 가치세의 일반 세율은 18%이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 1%, 8%, 26%, 40%의 부가세를 적용 받는 경우도 있다.

- 1%: 농산물, 신문/잡지, 리스거래(자동차, 비행기 제외) 등
- 8%: 식품, 극장/오페라 등 입장권, 교육서비스 등
- 26%: 화장품, 주방 용품, 음향 및 영상 기기, 보석류 등
- 40%: 자동차, LPG 등

또한 배당 소득세의 경우, 한-터키 이중과세 조약에 따라 25% 이상의 주식 소유 배당금 세율은 15%로, 25% 미만의 주식 소유 배당금 세율은 20%로 적용한다. 그 외에도 개인 소득세(15~40%), 자영업자 소득세(20~45%), 인지세(문서에 따라 개별 적용), 상속세(4~30%), 자산보유세(0.3~0.6%) 등이 있다. 참고로 현지연락사무소 근무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터키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자본, 수익, 배당금에 대한 자유로운 송금이 보장되어 있어 외환 관리에 있어서 자유로운 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터키가 OECD 회원국으로 외환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일찍부터 자본 시장 개방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에서 자금 조달의 경우 초기 투자 시 현지 파트너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터키의 경우 금융시장이 일찍부터 개방되어 있어 신용도 조사가 철저하기 때문에 아무런 거래내역 없이 처음부터 대출 및 융자와 같은 자금 조달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초기 투자를 위한 자본금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일단 투자가 시작된 후에는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많이 덜 수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은행 계좌에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예치시켜야 하는 등의 조항이 있다.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가. 피부로 느끼는 시장 규모

터키는 높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지하경제가 만연해 있는데, 터키 세무협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터키의 지하경제 규모는 개발도상국 평균인 GNP 대비 30%를 크게 웃도는 50%에 달하고 있어 세원확보 및 불공정경쟁 유발로 인한 자본 및 투자시장 발전에 큰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불법적인 형태로 근무하는 종사자 수도 약 40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경제규모를 소득에 반영한다면 터키 국민의 1 인당 국민소득은 실제 국민 소득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인 10,000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나. 상당한 규모의 중계무역

터키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고 국민 다수가 이슬람이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친 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유럽과 중동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잇는 경제적 가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유럽의 우수한 기술과 상품을 흡수하여 중동, 중앙아시아, 러시아 및 흑해 주변 동유럽 국가로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문화,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터키는 이들 국가들에 대해서도 상품과 문화의 전파자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중해와 흑해를 잇는 해양 교통의 연결로에 위치하여 흑해 주변국가들에 대한 상품공급지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다. 시장특성

1) 소득분배의 불평등 심각

터키는 도시 및 지역간 그리고 소득계층 간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한 마르마라 지역에 전체 경제의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소득계층간 격차도 매우 심하여 부유층과 빈민층간 소비가 크게 괴리를 보일 뿐 아니라 임금 격차도 매우 큰 상황이다. 이러한 빈부격차는 대도시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2) 지역별 부의 편중현상 심각

지역적으로는 이스탄불이 위치하고 있는 마르마라 지역, 에게해 및 지중해 쪽으로 연결되는 해안도시에 산업이 집중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수도인 앙카라를 제외하고는 내륙 지역은 거의 산업발달이 전무한 실정으로 터키는 동부 내륙지방 개발을 위해 동 지역에 외국인 투자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이스탄불은 인구 1,300 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7 분의 1 에 불과하나 전체 국민소득 기여도는 절반 이상일 정도로 경제적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전근대적 유통시장의 비중이 큼

일반소비자는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상설 대규모 재래식 시장이나 정기적으로 마을 주변에 형성되는 요일(화요시장, 수요시장, 목요시장 등) 시장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고 있다. 이스탄불 상업회의소는 이스탄불 내 전근대적 유통영업점 규모를 약 15 만 개로 추산하고 있다.

4) 부정부패 만연 및 엄청난 규모의 지하경제

기업가, 관료, 정치인들의 결탁에 의한 부정부패가 아직도 만연하며 탈세가 공공연한 상행으로 자리잡고 있고, 전근대적 상거래가 보편화되어 있어 무등록 사업장의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터키 지하경제의 규모는 50%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 사기업과 공기업의 소득격차 극심

터키 통계청은 2008 년 4 인 가족 빈곤선을 660 터키 리라(최저생계비: 255 터키리라)로 발표하였으나, 터키 노동조합들은 가족빈곤선과 최저생계비를 각각 2,310 터키리라, 730 터키 리라가 적정하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한편, 사기업 부문 종사 근로자의 경우 대출 초임 월 급여는 약 900~1,300 달러 수준이나 공무원 및 공공부문 근로자는 월 600~700 달러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소득격차가 심한 상황이다.

6) 가격이 시장을 지배

상품의 80%가 재래시장을 통해 유통되어 브랜드나 품질보다는 가격이 우선시 되고 있으며, 중산층 인구비중이 크지 않아 고가품 시장규모가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7) 유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수출입의 50% 이상을 EU 및 유럽국가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대 교역국은 독일이다.

라. 소비자 특성

터키 소비자는 극심한 소득불균형에 따라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극심하게 양분되어 있으며, 중산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따라 부유층 소비자들은 수입 브랜드 제품 선호도가 높으며, 빈곤층의 경우는 브랜드 및 품질보다는 가격을 중시하는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다.

마. 한국상품의 인지도

터키 소비자들의 한국상품에 대한 인식은 좋은 편이다. 주로 현대자동차, 삼성, LG 등 한국 대기업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고급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어, 기타 한국상품에 대한 인식까지 좋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기업 브랜드를 제외한 한국제품들의 경우 유럽산 고급 브랜드 제품과 중국 및 아시아산 저가제품 사이의 중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제품은 중국산 제품에 비해서는 품질에서 월등히 앞서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유럽 선진국 제품에 비해서는 아직도 품질보다는 가격 경쟁력에서 앞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바. 주요 유통채널

터키의 일반 소비자들은 아직도 근대적인 유통채널에서의 구매보다는 재래시장에서의 구매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 상품의 경우는 재래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할 정도의 저가 제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근대적인 대형 유통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근대적인 대형 유통점의 경우는 카르푸, 미그로스 등과 같은 할인매장과 백화점들이 있다. 이스탄불에는 대형 쇼핑센터가 약 6 개 정도 있으며, 대부분이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단장이 잘 되어있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그 외에는 일반 대리점을 통한 유통인데 대부분의 경우 수입 에이전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사. 유망 상품

터키는 기초 산업의 발달이 취약하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속한다. 특히, 기계 및 각종 부품의 경우 최근까지 유럽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왔으며, 최근 3~4 년 동안 한국 등 아시아 제품이 유럽 선진국 제품을 대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2~3 년 동안 중국제품의 대터키 수출이 급증 현상을 보이면서 중국제품과의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으로 터키 시장에서 이들 제품과 경쟁을 벌이는 한국 제품의 경우 가격 경쟁력 약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나 기타 아시아 제품에 비해 한국 제품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유럽 선진국 제품과 유사한 품질을 갖추고 가격경쟁력을 갖출 경우에는 시장진출 가능성이 매우 유망하다.

일반적으로 기술과 정밀도가 요구되는 기계류 및 각종 부품류, 품질 및 디자인이 중요한 직물 및 각종 공산품 등의 수출이 유망하다. 또한 브랜드를 가지고 진출을 시도할 경우에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터키 소비자들에게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진출이 유망하다고 볼 수 있다.

2. 물가정보

가. 이스탄불(터키) 기초 통계자료

	2003	2004	2005	2006	2007
명목 1 인당 GDP(USD)	3,412	4,187	5,016	5,477	5,560
명목 물가상승률(%)	18.4	9.4	7.7	9.7	8.4
명목 임금상승률(%)	29.4	41.7	12.7	8.7	8.1
미화 대비 연평균 환율	1.50	1.40	1.30	1.40	1.30

나. 이스탄불(터키) 물가정보(1 USD = 1.202358 YTL)

번호	항 목	가격(USD)	3. 어패류	
1. 식재료			3.1	냉동새우(중간크기) 1kg
1.1	쌀 1kg	2.91	3.2	대합조개 1kg
1.2	밀가루 1kg	1.21	3.3	연어(생) 1kg
1.3	백설탕 1kg	1.95	3.4	냉동참치 1kg
1.4	스파게티 면(엔젤헤어) 1kg	1.27	4. 낙농품	
1.5	계란 12 개	3.74	4.1	우유 500ml
1.6	햄 1kg	13.52	4.2	요거트 150g
1.7	베이컨 1kg	6.70	4.3	치즈(슬라이스) 500g
2. 육류			4.4	버터 500g
2.1	쇠고기 등심 1kg	19.88	4.5	마가린 500g
2.2	쇠고기 안심 1kg	19.88	4.6	바닐라 아이스크림 473ml
2.3	돼지고기 목살 1kg	-	5. 유지	
2.4	돼지고기 등심 1kg	-	5.1	식용유 1L
2.5	닭고기 가슴살 1kg	7.53	5.2	올리브오일 1L

6. 과일					
6.1	사과 1kg	3.20	13.10	세탁용 세제 3L	7.44
6.2	오렌지 1kg	2.70	13.11	섬유 유연제 1L	4.15
6.3	레몬 1kg	3.53	13.12	주방용 세제 750ml	2.49
6.4	바나나 1kg	3.32	13.13	살충제(스프레이 식) 330g	4.87
7. 채소			13.14	전구 60W 2 개(백열등)	1.33
7.1	양배추 1kg	1.25	14. 의류 및 신발		
7.2	양상추 1kg	4.98	14.1	남자정장	1,663.40
7.3	당근 1kg	2.87	14.2	여자정장	1,663.40
7.4	양송이 버섯 1kg	2.99	14.3	여성핸드백	1,455.47
7.5	감자 2kg	1.87	14.4	아동복	74.85
7.6	양파 1kg	2.07	14.5	청바지	98.97
7.7	토마토 1kg	4.90	14.6	남자코트	1,663.40
8. 과자 및 당류식품			14.7	여자코트	1,663.40
8.1	스낵과자 130g	-	14.8	티셔츠	108.12
8.2	초콜릿 100g	-	14.9	신사화	457.43
8.3	씨리얼(콘플레이크) 375g	3.12	14.10	숙녀화	474.07
9. 음료			14.11	드라이클리닝(정장 한 벌)	14.97
9.1	탄산음료 250ml 캔 6 팩	4.45	15. 가구		
9.2	생수 1L	0.62	15.1	소파 3 인용(패브릭)	1,663.40
9.3	오렌지주스(100%) 1L	3.12	15.2	침대 쿤 사이즈 매트리스	332.68
9.4	아메리카노 커피(전문점)	3.53	16. 의료비		
9.5	카페라떼 커피(전문점)	5.41	16.1	의료보험료 4 인 가족 1 년	1,500.00
9.6	인스턴트 커피 125g	6.61	16.2	병원진료비(의료보험 X)	42.00
9.7	Ground 커피 500g	13.72	16.3	병원진료비(의료보험 O)	42.00
9.8	홍차 티백 25bags	2.79	16.4	진통제 10 정	13.31
9.9	코코아 250g	3.33	16.5	해열제 100 정	0.83
10. 주류			16.6	흉부 x-ray 비용 1 회	124.75
10.1	맥주 355ml 캔 6 팩	10.81	16.7	치과 방문 1 회(스켈링 1 회)	45.74
10.2	스카치 위스키(750ml) 1 병	51.98	16.8	제왕절개수술	4,574.34
10.3	와인 750ml	47.41	17. 자동차 및 차량유지		
11. 담배			17.1	경승용차 900~1,299cc	21,624.17
11.1	담배 1 갑	3.12	17.2	소형승용차 1,300~1,799cc	29,109.47
12. 패스트푸드			17.3	중형승용차 1,800~2,499cc	54,060.44
12.1	햄버거 1 개	4.16	17.4	대형승용차 2,500~3,500cc	101,467.28
12.2	치킨 런치세트 1 개	7.90	17.5	초대형 3,500cc 이상	241,192.71
12.3	치즈피자 라지 1 판	21.21	17.6	무연휘발유 1L	2.59
13. 잡화			17.7	LPG(단위부피당)	2.15
13.1	치약 150g 1 개	6.36	17.8	경유 1L	2.26
13.2	샴푸 400ml	4.73	17.9	자동차 등록비(2,000cc 신차)	290.00
13.3	칫솔 1 개	3.53	17.10	자동차보험료 의무(2,000cc 신차)	188.00
13.4	화장비누 1 개	1.79	17.11	자동차보험료 임의(2,000cc 신차)	825.00
13.5	면도기 1 개	11.23	17.12	엔진 오일 1 회 교체 비용	33.27
13.6	전기 면도기	190.46	18. 교통비		
13.7	건전지 AA size 4 개 1 세트	3.33	18.1	도심 1 시간 주차료	6.24
13.8	미용용 화장지 1 통	2.20	18.2	지하철 기본요금(1 구간)	0.90
13.9	화장실 롤 티슈 12 롤	8.52	18.3	시내버스 기본요금	0.90
			18.4	택시 기본요금	1.19

18.5	택시 1km 당 추가요금	0.34	22.7	해당국 유력 일간 신문 1년 구독료	178.82
18.6	철도이용료(100km)	4.16	23. 교육		
19. 통신이용료			23.1	유치원 수업료 1년(사립)	10,396.24
19.1	전화 개통비 1 회선	NONE	23.2	초등학교 수업료 1년(사립)	7,277.37
19.2	전화 사용료 월 기본요금	12.00	23.3	중학교 수업료 1년(사립)	7,277.37
19.3	전화요금(시내) 3 분	0.17	23.4	고등학교 수업료 1년(사립)	7,277.37
19.4	국제전화 3 분	3.44	23.5	국공립 대학교	540.60
19.5	휴대전화 개통비	무료	23.6	사립 대학교	7,277.37
19.6	휴대전화 사용료 월 표준 1 분	0.70	23.7	전문대학	7,277.37
19.7	인터넷 가설비(최소 DSL)	40.00	23.8	외국인 학교 초등 수업료 1년	19,500.00
19.8	인터넷 월 사용료(최소 DSL)	70.00	23.9	외국인 학교 중등 수업료 1년	21,500.00
19.9	국내우편 일반편지 1 통	0.30	23.10	외국인 학교 고등 수업료 1년	22,500.00
19.10	국제우편 일반편지 1 통 (현지~서울)	0.60	24. 외식 및 숙박		
19.11	특급우편 1kg 이하(현지~서울)	94.00	24.1	패밀리레스토랑 4 인	124.75
20. 주택환경 및 공공요금			24.2	특급 호텔(5성급) 1 박	380.00
20.1	아파트 월 임차비용 150 m ²	1,500.00	24.3	중급 호텔(3성급) 1 박	60.00
20.2	단독주택 월 임차비용 150 m ²	3,000.00	24.4	특급 호텔(5성급) 조식	35.35
20.3	중개수수료 월 임차료의 % (단독주택)	12%	24.5	중급 호텔(3성급) 조식	14.97
20.4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의 % (단독주택)	150%	25. 스포츠		
20.5	가정용 전기요금 kWh	0.11	25.1	골프장 그린피(퍼블릭)	125.00
20.6	가정용 가스요금 m ³	0.30	25.2	골프공 1 다스(12 개)	39.99
20.7	가정용 수도요금 m ³	2.00	25.3	피트니스 클럽 1년 이용료	998.04
20.8	케이블 TV 1 달(기본)	5.82	26. 임금		
21. 가전제품			26.1	사무직 일반 초임(대졸)	700.00
21.1	LCD TV 40 인치	3.22	26.2	사무직 비서 초임(대졸)	400.00
21.2	DVD Player 범용형	165.51	26.3	생산직 일반 초임(학력 무관)	350.00
21.3	냉장고 600 리터급	3,325.96	26.4	가정부 시간당 임금(주중)	14.97
21.4	세탁기 10kg(드럼형)	1,247.55	26.5	베이비시터 시간당 임금(주중)	16.63
21.5	전자레인지 20 리터급	165.51	27. 이미용 서비스		
21.6	에어컨	988.06	27.1	여성 헤어컷 1 회	20.79
21.7	토스터기 1 개	49.90	27.2	남성 헤어컷 1 회	19.13
21.8	식기세척기 24 인치(폭)	739.38	28. 화장품		
21.9	데스크탑 본체	712.77	28.1	바디로션	7.48
21.10	노트북	1,663.40	28.2	영양크림	291.09
21.11	컴퓨터 프린터기	132.24	28.3	스킨로션	98.97
22. 문화서비스 및 도서			28.4	밀크로션	52.40
22.1	복사용지 1 권 250 매 (A4 또는 Letter Size)	4.16	29. 관공서 요금		
22.2	개봉극장 입장료 1 회(성인)	9.98	29.1	여권 발급 비용	483.47
22.3	DVD 타이틀 1 개(신작 기준)	16.63	29.2	신규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비용	424.17
22.4	도서 1 권(신작 소설)	12.48	30. 노동환경		
22.5	공연 best seat (유지컬, 대형극장 기준)	11.23	30.1	주당 법정근무시간	45 시간
22.6	CD 앨범 1 장 (대중음악 신작 앨범 기준)	10.81	30.2	출산휴가일수	120 일
			30.3	연간 국경일수	11 일
			30.4	토요휴무제	시행

* 비교

1.7	80g
16.4	24 정
16.5	20 정
16.8	사설병원
17.12	필터 교환 포함

20.3	연 임차료 기준
23.8	신청비, 입학비 등 포함
23.9	신청비, 입학비 등 포함
23.10	신청비, 입학비 등 포함
29.1	5년 기준
30.2	산전 60 일 산후 60 일

3. 바이어 발굴

터키는 D/B 발달이 아직 미흡한 관계로 바이어 발굴은 오프라인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바이어 발굴에 주로 사용되는 자료는 전시회 참가업체 카탈로그, 관련 협회 회원리스트 등인데 협회 회원리스트의 경우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활용도는 높지 않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주로 전시회 카탈로그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각종 협회, 매체, 전시회 정보는 이스탄불 무역관 홈페이지(www.kotra.or.kr/istanbul)에서 확인 가능)

○ 주요 협회

- 이스탄불 상공회의소(www.ito.org.tr)
- 앙카라 상공회의소(www.atonet.org.tr)
- 이즈미르 상공회의소(www.izto.org.tr)
- 부르사 상공회의소(www.btso.org.tr)
- 에게 공업회의소(www.ebso.com.tr)
- 철강제조협회(www.d cud.org.tr)
- 신발협회(www.turkishoes.org)
- 자동차산업협회(www.osd.org.tr)
- 이스탄불 섬유 의류 수출협회(www.itkib.org.tr)
- 전자산업협회(www.tesid.org.tr)
- 정보과학협회(www.tbd.org.tr)

○ 언론매체

- 둔야(경제전문지, www.dunyagazetesi.com.tr)
- 피난살포룸(경제전문지, www.finansalforum.com.tr)
- 터키데일리뉴스(영자신문, www.turkishdailynews.com)
- 휴리엣(일간신문, www.hurriyet.com.tr)
- 사바(일간신문, www.sabah.com.tr)
- Turkish weekly(영자신문, www.turkishweelky.net)
- 뉴아나톨리안(영자신문, www.thenewanatolian.com)
- 공보처 운영 웹사이트(영문뉴스, www.turkishpress.com)

○ 전시회 관련기관

- CNR(www.cnrexpo.com)
- TUYAP(www.tuyap.com.tr)
- IZFAS(www.izmirfair.com.tr)

최근 터키의 인터넷 환경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해 데이터를 관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향후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이 보다 손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터키에서 정기적으로 관리되는 D/B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을 통한 바이어 검색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바이어들은 대부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통해 바이어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터키에서는 일반적으로 터키어만 통용되기 때문에 한국업체의 인터넷 검색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터키어를 아는 사람에게 의뢰하거나 코트라에 정식으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유용하다.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검색사이트는 구글(www.google.com.tr)이다.

이외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유료 사이트로는 [kompas\(www.kompas.com\)](http://kompas.com)가 있다.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비즈니스 에티켓

1) 방문 시 복장

소규모 바이어들은 보통 자유로운 복장으로 일하기 때문에, 반드시 양복을 입고 만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양복을 입는 것이 좋으며, 양복이 아니어도 단정한 차림새는 필수적이다.

대기업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 양복을 입고 있으니 한국업체 직원들도 깔끔한 양복을 갖추는 것이 좋다.

2) 인사

터키인들은 처음 만난 사람과 주로 악수를 나눈다. 친근한 사이라면 동성간에도 서로 포옹하고 양 볼에 입맞추며 인사를 나누기도 하나, 비즈니스 상담 시에는 악수만으로 무난하다.

간단한 터키어 인사를 하는 것도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반 인사: 멜하바, 아침인사: 구나이든, 오후인사: 이이권레르, 저녁인사: 이이악삼라르, 밤늦게 헤어질 때: 이이게젤레르).

3) 선물

처음 만나는 바이어에게 부담이 되는 선물보다는 한국에 대한 소개도 하면서 바이어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좋다. 주로 한국 전통 무늬가 새겨진 열쇠고리나 휴대전화 액정 클리너 등 부피가 크지 않으면서도 귀여운 디자인의 물품들을 준비하여 대면하는 자리에서 건넨다면 상담을 훨씬 부드럽게 이끌어 갈 수 있으며 좋은 첫인상을 남길 수 있다.

4) 약속

터키에서는 방문 전에 예약이 필수이며, 바이어들이 대부분 바쁘기 때문에 최소 방문 3-4일 전에는 약속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일부 대기업의 경우는 방문 약속을 잡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소 1주일 전에는 약속을 확정하도록 한다.

5) 식사

터키에서의 식사 초대는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의 표현이기 때문에,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사업뿐만 아니라 개인적 친분을 위해 좋다.

나. 문화적 금기사항

터키인 대부분은 이슬람교도이므로, 종교적인 주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국에서 만났을 경우에는 이슬람사회에서 금기시하는 돼지고기 요리 등은 권하지 말고 동석하는 한국인들 역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터키인들은 과거 오스만제국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고, 국가적인 자부심과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국민이다. 따라서 터키와 터키 사회를 업신여기는 말은 바이어의 반감을 사고 상담결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조심해야 한다.

다. 상담/계약체결 시 유의할 점

1) 대면상담 중요

터키는 바이어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서비스가 거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바이어의 신뢰도는 대부분 상담하는 한국업체 스스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팩스나 이메일보다는 바이어 사무실이나 공장을 방문하여 직접 만나는 것이 바이어 정보 파악 및 거래 성사에 유리하다.

2) 상담 언어

터키 바이어들의 경우 사람에 따라 영어구사 능력이 크게 차이가 난다.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특히 중소기업 담당자일 경우 영어 의사소통이 더욱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방문 약속을 잡을 때 영어구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영어구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방문하는 한국업체가 통역원을 준비하여야 한다.

3) 바이어 회사 방문

바이어 회사를 방문하여 회사 규모, 영업 현황, 종업원 규모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바이어의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며, 신뢰도에 따라 계약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터키는 무역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바이어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입수하기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4) 독점요구에 대한 대응

터키 바이어는 임버릇처럼 독점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계약서에 독점권 명기 후 바이어 실적이 저조할 경우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독점권 부여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대신 구두 약속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좋다.

5) 외상거래는 위험

첫 거래에서부터 외상으로 거래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봐야 한다. 외상 거래는 양측간 신뢰가 충분히 쌓인 후에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터키는 무역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사고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분쟁은 바이어의 대금지불 지연 또는 거부 등이며, 간혹 마켓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분쟁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어의 해결능력과 해결의사를 확인하는 것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바이어는 고의로 접촉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터키 현지에서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코트라 무역관을 통하거나 현지 교포를 통해 바이어 접촉을 시도하면 대부분의 경우 바이어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바이어가 일방적으로 대금지불을 지연 혹은 거부하거나 고의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바이어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양자가 조금씩 양보하여 타협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나, 바이어와 접촉이 불가능하거나 의견 조율이 어려울 경우는 변호사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를 구할 경우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이나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소개 받는 것이 좋고,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설명한 후 변호사가 제시하는 사건해결 계획과 소요비용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한편, 대금미결제 등 분쟁발생이 예견될 경우에는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에 가입하고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실제로 많은 기업이 활용하고 있다.

이외 터키 투자진출 시 우리 기업들이 겪는 가장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는 노동허가 및 외국인 거주증 발급, 토지 구매, 복잡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리 등을 들 수 있다.

가. 유형별 분쟁사례

1) 고의적인 통관지연

대금지불 전에 물품이 터키 세관에 도착한 경우, 바이어가 고의로 통관을 지연시키면서 물품의 인수거절을 요구하는 경우인데, 현지 시장상황이 좋지 않을 때 마켓 클레임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이다. 이는 실제로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 발생할 수도 있지만 물품가격을 할인

받기 위해 고의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업체 입장에서는 Ship Back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이어의 가격 네고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고의적인 대금결제 지연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대금결제를 지연시키는 경우인데 대부분의 무역 분쟁이 이에 해당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대금결제 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 변호사 등을 동원하여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좋다.

3) 클레임

물품에 대한 클레임의 경우는 발생 초기에 신속히 확인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한국업체의 경우 몇 년 동안 거래를 하였음에도 바이어와 전혀 만나보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문제발생 소지도 높고 발생시 해결에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급적 첫 거래 전에 바이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회사의 규모, 상태, 바이어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기적으로 만나 관리하는 것이 영동한 클레임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나. 투자진출 애로사항 사례

1) 노동허가 및 외국인 거주증 발급

현지 연락사무소, 지사 및 법인의 본사 파견 직원의 경우 터키 정부로부터 노동허가 및 외국인 거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 절차가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매우 불투명하게 진행되어 많은 기업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에서는 브로커를 활용하여 노동허가 및 거주증을 발급받고 있으나, 비용(노동허가 및 외국인 거주증 1건 당 약 500~600달러)도 적지 않고 발급에 까지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실제 많은 기업에서 직원들이 파견 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노동허가를 발급받지 못하여 업무에 차질을 겪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2) 토지 매입

터키의 일부 산업단지는 토지를 개인이 조금씩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투자 진출 기업이 산업단지 내에 공장설립을 위해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도 각 토지 소유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투자 진출 기업은 각 개인별로 토지 매입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낭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최근 외국인직접투자 급증에 따라 이스탄불 근교의 산업지대는 지가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어 많은 수의 기업들은 추가 투자 또는 신규 투자 시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편, 2008년 3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관한 법률이 터키 최고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현재는 관련 법률이 정비되어 2008년 이전과 같이 일부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지역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토지 매입이 가능하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LG전자의 에어컨 공장 터키 진출 성공사례

LG전자는 1999년 5월에 터키의 최대 가전제품 생산업체 중 하나인 Arcelik사와 합작으로 이스탄불 부근의 Gebze 지역에 에어컨 생산공장을 신설하였다.

LG전자는 터키 시장이 유럽, 아프리카, 중동의 지리적 요충지라는 점과 파트너사인 Arcelik (아르첼릭)사의 제품이 유럽으로 수출된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적 제휴를 도모하고 단독 투자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50:50 비율의 합작투자를 시도하였다. 초기 자본금은 2,500만 달러이며, 투자액은 현재까지 5,000만 달러다.

초기에는 터키시장에 대한 생소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언어와 근로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한국직원과 현지직원 사이의 갈등 및 파트너사인 Arcelik과의 관계에 있어 미묘한 상황 등은 초기 정착을 쉽지 않게 만드는 요소들이었다.

하지만 현지법 준수 및 지속적인 대화, 꾸준한 개선노력을 기울인 결과 생산성이 크게 높아졌다. 2002년에는 12만 대에 불과하던 에어컨 생산량이 2006년에는 77만 대까지 급증하였고, 매출액 또한 2002년 6,700만 달러에서 2006년 2억 6,000만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2007년에는 LG-Arcelik 에어컨 생산 및 매출이 각각 100만 대, 3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LG 전자는 LG-Arcelik의 성공에 힘입어 2008년 연락사무소 형태에서 법인으로 법적 지위를 바꾸면서 더욱 적극적인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LG-Arcelik 투자개요

- 최초 투자시기: 1999년 5월
- 자본금: 2,500만 달러
- 투자액: 5,000만 달러
- 합작비율: 50:50
- 종업원 수(한국인/현지인): 6/860

LG-Arcelik의 연간 에어컨 생산량 및 매출액

(단위: 천 대, 백만 달러)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생산량	120	165	365	538	770	1,010
매출액	67	68	122	138	260	301

주: 2007년 자료는 추정치

자료: 무역관 자체조사

나. 현대자동차 공장 터키 진출 성공사례

현대자동차는 1995년 9월 터키 내수시장 성장 가능성과 유럽,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생산 기지로서의 이점을 고려하여 터키의 Kibar Holding 과 50:50 합작으로 이스탄불 외곽 Izmit 지역에 자동차 생산공장을 설립, 진출하였다.

현대자동차는 운영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1999 년 대지진 발생 때 공장 파손으로 물질(약 1,000 만 달러 피해) 및 인명 피해(25 명 사상)가 컸으나 전 직원이 합심하여 2.5 개월 만에 복구하였으며, 2005 년 상용차 세금이 승용차 세금구조(상용차보다 높음)로 변경되었다가 1 개월 만에 터키 자동차공업협회의 노력으로 환원되는 등 현지의 자연적, 환경적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현재도 잦은 외환 위기에 따른 환관리에 어려움, 승용차의 엔진 배기량별 세금 부과체제로 인한 고급차 판매 확대에 애로를 겪고 있다.

그러나 딜러망 확대 및 개선으로 2006 년 현대자동차가 전세계적으로 수여하는 우수딜러 중 63 개사를 획득하였으며,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하여 품질 우월성을 강조, 쇼룸트래픽 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딜러 쇼룸 방문객수 모니터링 및 향상 노력을 기울이는 등 현지 시장 공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8 년에는 해치백 차량(i-10, i-30)과 함께 고유가 시대에 따른 소형차(Getz)를 시장에 새롭게 선보이면서 소비계층 확대를 노리고 있다.

□ 현대자동차 투자개요

- 최초 투자시기: 1995년 9월
- 자본금: 1억 500만 달러
- 투자액: 2억 7,000만 달러(2007년 기준)
 - 2007 년 3 월 확장 투자를 완료하여 10 만 대 생산 체재 구축 완료(기존 생산능력: 6 만 대)
- 합작비율: 초기 50:50→2006년 이후 70(현대자동차): 30(현지파트너: Kibar Holding)
- 근무인원: 약 2,200명(주재원 및 현지직원 포함)

연간 생산 추이

(단위: 대)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8 월
생산량	10,101	16,361	35,022	41,199	60,895	90,190	58,700

7. 이주정책 가이드

가. 입국비자

터키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이민자를 받지 않고 영주제도도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인의 터키 거주는 사업, 관광, 연수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3 년 2 월 27 일자로 발효된 <외국인취업허가에 관한 법령> 제 6 조에 따라 터키에서 최소 8 년 이상 합법적인 방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거주하거나, 총 6 년 이상 합법적으로 일한 외국인들에게 기업환경이나 상태에 관계없이 그리고 특정한 사업, 직업, 재산 또는 지리적 위치에 제한을 가하지 않고 영구 취업허가가 발급된다.

양국 간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한국인은 90 일까지 터키에서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하지만 사업을 목적으로 6 개월 이상 장기체류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한터키 대사관을 통해 노동허가 및 터키 입국비자를 신청/발급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완료하기까지는 약 3 개월이 소요된다.

○ 주한 터키대사관 연락처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4-52, 비비안 빌딩 4층
- 전화번호: (02) 794-0255
- 팩스: (02) 797-8546

노동허가와 노동사증의 신청 및 발급절차는 한국과 터키 양국에서 동시에 시작되어 동시에 종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청인이 직접 주한터키대사관에 신청한 후 3일 이내에 터키(주로 신청인이 소속된 기업의 터키지사 혹은 법인)에서 터키 노동부로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6개월 이상의 터키 거주 허가를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터키 노동부에 직접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여행목적이 아닌 터키에서 노동을 하려는 장기 체류자의 경우에는 상기 절차에 따라 터키 입국 전에 노동비자를 취득하고 와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비자 신청 및 취득을 위해 주한터키대사관을 방문해야 하므로 왕복항공요금과 시간낭비 등 소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일단 터키에 입국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외사경찰국에서 체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체류허가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서 신청하면 심사절차를 거쳐 통상 1주일 이내에 발급된다. 체류허가 기간은 통상 1년 단위로 부여되지만 사업체의 법적 지위, 갱신기간, 여권 유효 기간 등을 감안하여 1년 미만 단위로도 발급될 수 있다.

노동허가와 입국비자는 노동목적에 따라 당사자만 발급 받으면 되지만 체류허가는 가족 모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 발급된 국/영문 자료들은 터키어 번역 및 공증절차를 거쳐야 하고 체류허가 발급신청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나. 부동산 취득 및 임대

터키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바, 한국의 경우 1998년 개정된 외국인토지법이 군사시설·문화재·자연보존지역을 제외한 부동산을 토지의 용도나 면적에 제한 없이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따라서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터키 법률에 따라 한국인은 터키 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터키 외교부에서 입수한 관련 법률 및 상호주의 적용대상국 리스트에도 한국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허용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고 외교부 담당자도 한국인의 터키 내 토지 취득이 가능함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군사시설 주변이나 30헥타르 이상의 토지는 허가대상이다. (자료: 주터키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사무실이나 주거용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인을 활용해야 한다. 현지 일간지 등을 통하여서도 부동산 임대정보가 나오지만 터키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보입수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간 높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통상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나 장기 계약일 경우에도 연간 단위로 임차료 인상률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는 1년치 월세금액의 12%가 관례화 되어 있다. 현지에서 거래 계약 시 주로 통용되는 미화계약의 경우에는 매년 인상 없이 장기계약도 가능하나 대부분의 경우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사무실임차의 경우에는 임차료 이외에도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부동산 임대세(Stopaj)를 소유주의 성격(법인소유: 가액의 18%, 개인소유: 22%)에 따라 임차인이 납부해야 한다.

한편 2008 년 3 월 터키최고재판소에서는 외국인 부동산소유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린 바 있으나, 이후 터키 정부에서는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여 현재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은 일부 군사지역 및 개발제한지역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 주재원들의 주요 거주지

한국은 물론 대부분 외국기업에 종사하는 주재원들이 거주하는 곳은 유럽 쪽 이스탄불 지역이며, 그 중에서도 에틸레르(Etiler), 울루스(Ulus) 등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지역에는 몇 채의 아파트(주로 10 - 20 가구가 한 빌딩에 거주 가능)가 무리를 이루어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거의 모든 주재원들이 이들 단지 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단지 내 아파트의 경우는 공동 경비원이 24 시간 단지 내 경비 및 순찰을 하는 관계로 치안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현지 고소득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1999 년 터키 대지진 후 지진에 안전한 지역들에 대한 지질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외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지역이 비교적 안전한 곳들로 밝혀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택 임차가격 또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게다가 2005 년 10 월 터키의 EU 가입 협상개시, 현지 부동산 경기 활황 등의 영향으로 인해 현지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주택 임차료 역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4 인 가족이 거주 가능한 방 3 개짜리 아파트를 에틸레르, 울루스 등의 선호지역에서 구하려면 최소 3,000 달러의 월 임차료(공동 관리비 제외)가 소요되며, 최근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공동관리비 역시 급등하여 월 평균 약 500~1000 달러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라. 이삿짐 통관

일단 체류허가가 발급되면 항구에 도착한 이사물품 통관이 가능하다. 지정된 업체를 통하여 이삿짐을 통관하는 과정에는 전기전자제품 및 가구 등에 대하여 터키 세관이 체류기간 동안 은행이나 세관에다가 일정금액을 예치하도록 요구 받는다. 이 예치금은 터키에서 출국할 때 반입한 물품 등이 이상 없이 반출되었다는 세관의 통관 확인 서류를 취득한 후에만 인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 보통 배가 출발한 후 약 1 개월 후에나 통관 확인 서류를 받을 수 있어 애로점이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통관 검사가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짐을 부치기 전 전기전자제품의 경우는 제조회사, 브랜드, 모델명, 시리얼 넘버를 별도로 기재해 두는 것이 이삿짐 통관 시 세관의 까다로운 검사를 손쉽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이다.

마. 자동차 구입

외국인이 터키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방법에는 2 가지가 있다. 터키는 외국인에 대해 일반 터키인과 마찬가지로 과세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또는 외국인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면세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다.

면세의 경우에는 그만큼 차를 싸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불편도 상당하다. 우선 면세 받은 금액만큼을 은행에 예치금으로 고정시켜 놓아야 한다. 예치금액은 매년 관련 자동차 공단(Turing)에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소유주에게 변경 통보해 준다. 또한 면세자동차 소유주는 터키 출국 시 은행에서 발급한 보증서한을 반드시 휴대해야 하며, 자동차로 출국할

경우에도 별도의 면세자동차 증명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 보증서를 발급한 은행은 매분기 단위로 보증금액의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징수해 간다. 또한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터키 내 거주허가를 가진 외국인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신차의 경우에는 전문 딜러상을 통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일간지 광고나 중고자동차 전문 딜러 등을 통하여 구입한다. 자동차 등록 절차를 외국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은 언어 한계상 불가능하므로 전문 브로커를 활용하거나 경험 있는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바. 전화신청

주소지 관할 전화국에 가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의사소통에 애로 사항이 없다면 전화 설치 신청 후 약 2 주정도면 개통이 가능하다.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업자 지정대리점에서 계약방식(전화요금 월별 고지) 또는 선불 카드(Pre-paid Card)방식에 의해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다.

사. 은행계좌 신청방법

외국인이 은행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납세번호, 신분증이 필요하며, 회사원일 경우에는 거주증과 노동허가가 추가로 필요하다. 신청방법은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소요시간은 빠르면 30 분에서 1~2 일 정도가 소요된다.

아. 의료기관

외국인들의 경우 터키인이 운영하는 현지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주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설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의료기관으로는 독일병원, 미국병원이 있으며, 터키 현지인이 운영하는 고급 사설 병원인 아즈바뎀(Acibadem)이라는 병원도 있다.

이들 사설 병원들을 의료보험 없이 이용할 경우 진료비가 약 130 달러 이상으로 비싼 편이다. 그리고 이들 병원의 의사들은 대부분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병원에서 통역원을 불러 도와주기도 한다.

자. 자녀 교육

이스탄불에 있는 초-중-고등과정의 국제학교는 소수에 불과하며 학비도 비싼 편이다. 다만, 대학교 경우 현지대학교 중 일부(Bosphorus Univ.등)에서는 수업 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는 등 저렴한 학비에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교명	위치	연락처	이수과정	학비(달러)
British Intl.(영국계)	Etiler Zekeriyakoy	0212-287-2264/5	유치원-초등과정 초등분교-중고등	약 18,000
IICS (미국계)	Hadimkoy	0212-857-8271	1~12 학년	약 18,000
MEF Intl.(터키계)	Ortakoy	0212-287-3871	유치원-고등과정	약 15,000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터키는 국토가 광대하므로 지역마다 기후가 다르다. 그러나 한국 비즈니스맨들의 방문이 집중되는 이스탄불의 경우는 한국과 유사하다. 따라서 방문 시 복장은 한국과 비슷하게 하면 된다. 다만, 터키는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으로 여름은 고온 건조하며 겨울에는 온난 다습하다. 특히 10월 중순부터 그 다음해 3~4월까지의 우기로서 흐린 날이 많다. 유의할 점은 하루 중에도 기후 변화가 다양하여 의복을 다양하게(얇은 것, 두꺼운 것) 준비해야 날씨 변동에 적응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 중심지인 이스탄불의 경우, 90년대만 해도 겨울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았으며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많지 않았으나, 2001년 12월 말부터 2002년 1월 초까지 기록적인 폭설로 교통이 전면 마비되는 최악의 이상기후를 보인데 이어 2003년 4월, 2006년 3월, 2008년 2월에도 폭설로 인해 공항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5월부터 10월초까지는 날씨가 좋으며 6~8월경에는 더운 날씨가 계속된다. 그러나 바다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조하므로 그늘이나 실내에서는 서늘함을 느낄 수 있다. 10월부터 3월 사이에는 자주 비가 내리고 기온은 낮지 않더라도 한기를 느낄 수 있으므로 터키로 출장오시는 분은 우산 또는 우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터키 주요 도시의 평균기후표

도시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Antalya	10	11	13	16	20	25	28	28	25	20	15	12
Izmir	9	10	11	16	20	25	28	27	23	18	15	10
Istanbul	5	6	7	12	16	21	23	23	20	16	12	8
Trabzon	6	6	7	11	15	20	22	22	19	15	12	9
Ankara	0	1	5	11	16	20	23	23	18	13	8	2
Erzurum	-9	-7	-3	5	11	15	19	20	15	9	2	-5
Diyarbakir	2	2	8	14	19	26	31	31	25	17	10	4

주1: 이스탄불 - 터키 최대의 상업도시

주2: 앙카라 - 터키의 수도

주3: 이즈미르 - 터키의 최대산업지역의 중심으로 에게해 연안에 위치

주4: 안탈야 -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농업 및 관광 중심지역

주5: 트라브존 - 흑해 연안에 위치한 농업 중심지

주6: 에르주룸/디야르바크르 - 동남부 산악지역의 상공업 중심지

나. 시차/근무시간

1) 시차

3월 말부터 10월 말까지는 서머타임 실시로 한국과 6시간 차이가 나며, 나머지 기간은 7시간 차이가 난다. 한국시간이 빠르므로 7시간 시차가 있을 경우, 한국이 오후 3시일 때 터키는 오전 8시가 된다. 세계 시간(Time Zone)으로는 GMT+2 이다.

나. 근무시간

일반적으로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근무한다. 그러나 관공서 등 대민 기관은 오후 4시면 대부분 마감한다. 하지만, 민원인 부담으로 특별수수료를 지급하여 연장 시간에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다. 은행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나 통상 오후 12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는 중식시간으로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은행 및 관공 서는 토, 일요일 휴무한다.

일반식당, 상점, 백화점은 일년 연중 개점하며 통상 상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반식당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백화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점한다. 최근에는 24시간 편의점도 점차 생겨나고 있다.

다. 도량형

구분	단위	비고
길이	m, km 등	한국과 동일
무게	g, kg 등	한국과 동일
속도	m/h, km/h 등	한국과 동일
부피	Liter, 입방미터 등	한국과 동일
전기규격	220볼트 50 헤르츠	한국: 60 헤르츠(한국제품 사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수명단축 및 성능 저하 가능성)

라. 출입국/비자

입국 시 출입국신고서 작성은 필요 없고 신고물품이 있을 경우에만 세관 심사대를 거치며, 그 외에는 대부분 세관검사 없이 통관한다. 단, 세관원이 임의로 선택하여 세관검사를 하므로 샘플 등은 가능한 한 출국 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ATA 까르네를 휴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전자제품, 손목시계, 귀금속 등의 샘플은 통관이 불허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ATA 까르네로 입국할 경우 신고한 샘플 등의 물품은 반입된 후 1개월 내에 다시 반출되어야 하며, 1개월이 초과될 경우에는 정식 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1) 면세품 보유한도

- 담배: 200 개비, 시가 50 개까지
- 와인, 위스키, 꼬냑 등: 1000 CC 까지
- 향수: 120ml 5 병까지
- 기타 선물용품: 상용 목적이 아닌 선물용품은 300 유로까지 면세

2) 현금반입/반출

터키 내로 들어오는 외화금액에 대한 한도는 없다.

15,000달러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반입 및 반출 할 수 있으나, 15,000달러 이상 반입 및 반출 시에는 인출 은행의 증명서가 필요하다.

3) 기타

휴대품 통관은 Video Camera, 사냥총, 가죽 Coat 및 전자 제품의 경우에는 재반출 조건으로 통관이 허용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무기류, 마약류 통관은 금지되어 있으며 또한 출국 시 기념품 통관은 허용되나 골동품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오래된 자기, 카펫 등을 가지고 출국하려면 지방박물관장이 발급 하는 허가서가 있어야 한다. 밀수는 중대한 범죄로서 실형이 따르며 입국 시 여권에 표시된 차량이나 전기기구는 출국 시 반드시 터키 밖으로 반출되어 한다.

취업 또는 파견근무의 경우 주한터키대사관에서 노동허가서(Work Permit - 터키 현지지사가 있을 경우 직접 노동부로 신청) 및 비자를 받아야 하며, 터키 입국 후에는 외국인 거주 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비자 발급 절차는 수시로 바뀌고 있어 반드시 주한터키대사관에 확실하게 문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는 터키 현지 사무소를 통해 노동허가서 발급 신청을 터키 노동부에 한 후, 주한터키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해야 하며, 주한터키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비자는 법적으로 신청 후 90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상 약 2개월이 소요되므로 서둘러서 신청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자를 발급 받은 후 터키로 입국하면 3개월 이내에 경찰청에서 거주허가증(Ikamet, 통상 3~4일 소요)을 발급 받아야 한다. (거주허가증이 없으면 이삿짐을 찾을 수 없으며, 차량 구입도 불가능) 하지만 관광객의 경우는 90일까지 비자 면제협정에 의하여 비자가 면제 된다. 장기체류 (취업 및 유학)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에서 노동허가 또는 수학허가 및 비자 발급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장기 체류 시에는 3개월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여야 여유 있게 비자를 받고 출국할 수 있다.

일단 무비자로 입국한 후 사정에 의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체류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한국으로 귀국하여 주한 터키대사관에서 비자신청 및 수령을 해야 한다.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노동허가증은 현지에서 취득이 가능하며, 발급처는 당초 터키 재무성에서 2003년 9월 터키 노동청으로 변경되었다.

○ 비자발급처 (주한터키대사관)

-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4-52 번지 비비안 빌딩 4 층 (우)140-240
- 전 화: 02-794-0255/3778
- 팩 스: 02-797-8546
- 휴 일: 토, 일요일 및 양국의 공휴일

마. 환율/환전

1) 환율

터키정부는 터키리라(TL)의 화폐단위가 과다하게 높음에 따라 각종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판단, 2005년 터키리라의 '0'6단위를 제거하는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에는 구화폐인 TL과 신화폐인 YTL이 함께 통용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YTL만 통용되고 있다.

YTL 지폐에는 1, 5, 10, 20, 50, 100 YTL이 있으며, 동전의 경우는 1 YTL 동전이 있고, 쿠루쉬 (Kurus)라는 하부 단위가 있으며, 1, 5, 10, 25, 50 쿠루쉬 동전이 있다.

2008년 5월 기준 약 1달러=1.24터키리라의 환율을 기록하고 있다.

2) 환전

공항 내 은행, 시중은행, 호텔 및 시내환전소(DOVIZ)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 시내환전소가 다소 유리하나 은행 및 호텔과 큰 차이는 없다. 터키환전의 특징은 매입률과 매도율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미화 1달러당 약6-7원 정도) 웬만한 식당과 상점에서는 미화를 받으며 이때 적용되는 환율도 실제 환율을 적용해 고객에게 크게 불리 하지 않다. 하지만, 택시 등 교통수단은 터키화 거래가 기본이다. 아울러 현지 환전소에서 는 유럽과는 달리 환전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3) 신용카드

터키에서 신용카드는 폭넓게 통용된다. 호텔은 물론이고 식당, 슈퍼마켓, 기념품 가게 등 대부분의 장소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출장 시 현금 과다보유에 따른 불편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바람직하다. 다만, 구멍가게, 일부 소규모 기념품 가게 등에서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있다. 또한 백화점을 비롯한 대부분의 매장에서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선호하고 있으며, 현금결제 시 약 8%의 할인율이 적용되므로 물건 구매 시에는 현금결제가 금액 면에서 유리하다.

바. 교통/통신

1) 한국과의 항공편

한편, 2005년 6월부터 전세기를 통해 인천-이스탄불간 직항 노선을 운행하던 대한항공이 2006년 5월 정기노선 취항을 함에 따라 한-터간 항공 교통이 더욱 편리해졌다. 현재 대한항공 및 터키항공이 주 4회 왕복 운항하고 있으며, 아시아나와 터키 항공 간의 코드 셰어는 2006년 초 종료되었다.

□ 터키항공

서울-이스탄불 간 항공편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에 출발한다.

□ 대한항공

2006년 5월부터 정기노선 취항하여 운항되고 있는 서울-이스탄불 간 대한항공 항공편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출발한다.

그 밖에 에미레이트항공,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케세이퍼시픽, 우즈벡항공 등도 자국을 경유하여 이스탄불과 서울을 연결하는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다. 항공편은 계절 및 고객 수요에 따라 변동이 잦으므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2) 공항-시내교통

□ 공항버스-Havas

공항청사 출구 전면에 대기하고 있으며 출발 전에 요금(약6달러- 현지화로만 지불 가능)을 지불해야 한다. 공항-Taksim(상업의 중심지)지역은 매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공항-Akmerkez(쇼핑센터 및 외국인거주지역) 구간은 매 2시간 간격으로 운행한다.

□ 택시

공항출구에 대기하고 있어 기다리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미터 요금(기본요금 1.60달러, 1km마다 1.04달러 추가)만 지불하면 된다. 공항에서 Taksim(이stanbul 중심지)까지는 약 40터키리라(약 30달러)의 요금이 나오며, 공항에서 Levent(무역관 소재 신 상업 중심지)까지는 약 35터키리라(약 28달러) 정도의 요금이 청구된다. 그 외에 버스, 전철, 택시 등을 연하여 이용할 수도 있지만 여행객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다.

3) 국내교통

□ 항공

이stanbul, 앙카라, 이즈미르, 안탈야 등 주요도시를 연결하고 있다.

□ 철도

이stanbul(유럽 지구)에서 불가리아, 그리스 등지로 가는 오리엔트 특급 열차가 운행되며, 이stanbul(아시아 지구)에서 터키 내륙을 횡단하여 시리아, 이라크, 이란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운행되고는 있으나 승객이 많지 않고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운행 빈도도 1주일에 1회 수준이다.

□ 버스

터키의 각 지역을 연결하는 가장 편리하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여행사 등에서 승차권 구매가 가능하고 정차역도 승차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내버스는 약 1달러 정도로 현금 승차는 허용이 안 되는 버스도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액권을 발급 받거나 1회용 승차권을 구입 하여 승차해야 한다. 돌무쉬라는 대중 교통수단도 있으나 터키를 일시 방문하는 외국인이 이용하기는 용이치 않다.

□ 지하철

앙카라 및 이stanbul에서 지하철(요금 약 1.11달러)이 운행되고 있으나 노선도 하나에 단거리(6정거장)여서 이용에 한계가 있다.

4) 통신

□ 국제통신

22:00-09:00시까지 할인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stanbul-한국간 국제통화요금은 3분에 2.15달러 수준이다. 공중전화가 그다지 보급되어 있지 않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시내 중심지 및 관광지 등 일부 지역에 제한되어 있으며 사전 전화 카드를 구입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터키에서 한국으로 전화할 경우는 국제전화 접속번호 (00)를 누른 후 82-지역번호-번호순으로 전화를 걸면 된다.

□ 국내통신사정

유선전화는 전국적으로 약 2,000만 대가 보급되어 국민 3.2명당 1대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영전화회사인 Turk Telekom의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조만간 민영화될 예정이다. 휴대폰 보급도 상당한 수준으로 현재 약 2,000만 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GSM 방식의 3개 이동통신(Turkcell, Telsim, Avea) 사업자가 있다.

5) 우편

항공특사우편

회사명	한국까지의 배송기간 (근무일 기준)	가격 (1kg 이하)	홈페이지	전화번호
DHL	3일	94 유로	www.dhl.com.tr	440 00 40
TNT	3일	106 유로	www.ups.com.tr	444 0 868
FEDEX	2일	99 유로	www.fedex.com/tr	444 0 33
SKYNET	4일	48 유로	www.skynettr.com	0212 235 8700

□ 일반우편

- 전화번호
 - 우체국 전화번호(편지): 90-212-612-3642
 - 우체국 전화번호(소포): 90-212-612-0802
- 편지 발송가격(국내)
 - 20gr까지: 0.65 YTL
 - 20-50gr까지: 1 YTL
 - 50-100gr까지: 1.65 YTL
 - 100-250gr까지: 2.20 YTL
 - 250-500gr까지: 2.75 YTL
 - 1000gr: 3.30YTL
- 편지 발송가격(한국까지)
 - 20gr까지: 0.85 YTL
 - 20-50gr까지: 1.40 YTL
 - 50-100gr까지: 1.90 YTL
 - 100-250gr까지: 3.85 YTL
 - 250-500gr까지: 6.60 YTL
 - 1000gr: 13.00 YTL
- 소포 발송가격(국내)
 - 1 kg까지: 4 YTL
 - 1 kg 추가 시마다: 1.50 YTL

- 소포 발송가격(항공, 한국까지)
 - 첫 1 kg: 44.10 YTL
 - 1 kg 추가 시마다: 17.10 YTL
- 소포 발송가격(선편, 한국까지)
 - 첫 1 kg: 33.90 YTL
 - 1 kg 추가 시마다: 7.90 YTL

사. 호텔/식당

1) 호텔

터키의 수도는 내륙에 위치한 앙카라이나 상업중심지는 보스포루스 해협에 위치한 이스탄불이다. 이스탄불은 유럽 이스탄불(전화지역코드: 0212)과 아시아 이스탄불(전화 지역코드: 0216)로 크게 나누어진다. 유럽 이스탄불은 과거 비잔틴제국 및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던 구 시가지와 공화국 수립 이후 새로 개발된 신 시가지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방문목적에 따라서 체류호텔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일례로, 관광 목적이라면 관광지인 구시가지에 위치한 저렴한 호텔에 투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출장목적의 경우에는 신 시가지의 중심지인 Taksim이나 최근에 새로이 개발되고 있는 Levent, Maslak 지역에 위치한 중/고급호텔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주요 호텔 (이스탄불)

(국가-지역번호: 90-212)

호텔명	위치	전화	팩스	비고
CEYLAN-INTERCONTINENTAL	TAKSIM	231 2121	231 2132	5스타
HILTON	TAKSIM	315 6000	315 6046	5스타
MARMARA	TAKSIM	251 4696	249 7106	5 스타
DORINT PARK PLAZA	TAKSIM	254 5100	254 7160	4 스타
ERESIN	TAKSIM	256 0803	253 2247	4 스타
PRINCE	SIRKECI	513 2550	522 4359	4 스타

주: 호텔 요금은 고급 호텔은 300달러 이상, 중급 호텔은 150~200달러 선이다. 호텔 요금 견적 의뢰 시 조식 및 부가세(8%)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터키 호텔은 일반 고객에게는 높은 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협약을 맺은 기업에서 예약을 할 경우에는 약 3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직접 호텔에 예약하는 것보다는 호텔예약 전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예약할 경우 보다 저렴하며, 여행사를 통해 예약을 하는 경우도 할인율이 적용되지만 대금 결제를 여행사에 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따른다.

따라서 호텔을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호텔에 직접 예약하기 보다는 인터넷이나 여행사를 통한 예약 등이 바람직하다.

2) 식당

터키 전통 음식인 케밥(Kebab)은 양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을 재료로 구운 음식을 통칭하며, 요리 방법 및 지방 특산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된다. 프랑스, 중국과 더불어 세계 3대 요리로 평가되고 있으며, 한국인의 입맛에 맞고 냄새도 적어 먹기에 부담이 없다.

한식

식당명	위치	전화/팩스번호	비고
서울식당	Sultanahmet	458-0621/458-0624	관광지 내 번화가에 위치
한사랑식당	Sultanahmet	516-1128/638-0044	관광지 내 번화가에 위치
한국관	Sultanahmet	516-8415/517-0434	블루모스크 근처에 위치
미도식당	Maslak	286-0664/285-0951	Sheraton Hotel 내 위치
가야	Taksim	238-0000	Green Park Hotel 내 위치
태백	Taksim	254-3911	탁심 광장 내 위치

일식

식당명	위치	전화/팩스번호	비고
UTAKA	Taksim	231-1306/231-1283	하얏트리젠시호텔 내 위치
Udonya	Taksim	256-9318/256-6914	시내중심지인 탁심에 위치

양식

식당명	위치	전화/팩스번호	비고
Reina	Ortakoy	227-1711/-	보스포루스 해변가 고급식당
Vogue	Besiktas	227-4404/258-8872	사무용빌딩 내 고급이태리식당

터키식

식당명	위치	전화/팩스번호	비고
Beyti	Florya	663-2990/663-2995	전통터키식으로 가장 유명
Gelik	Bakirkoy	560-7282/560-7285	전통터키식으로 유명
Kas Beyas	Florya	663-2890/663-6075	공항인근 소재 육식케밥전문
Le Pecheur	Tarabya	262-7070/262-4005	보스포루스해변가 생선요리
Park For a	Ortakoy	265-5063/265-5072	보스포루스해변가 생선요리
Hacibaba	Taksim	244-1886/245-3382	시내중심가 케밥전문

아. 관공서 관행

1) 공무원의 지위

터키의 공무원은 다른 민간부문에 비하여 보수가 지극히 열악한 수준이다.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사, 경찰, 보건직 공무원들의 경우 월평균 급여가 600~700 달러에 불과하여,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자연히 업무에 수반되는 권리를 최대한 이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참고로, 2008년 정부에서 고시/적용하는 16세 이상의 최저 월급은 638.70터키리라로 약 510달러 수준이다.

따라서 업무처리가 권위주의적, 관료주의적으로 흐를 수 밖에 없고 모든 업무를 복잡다단 하게 만들어 민원인의 불만과 불평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터키에서는 가능한 한 관공서를 접촉하는 것을 싫어하며,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제반 절차가 소요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업무를 처리해 주는 브로커가 성행하는 것도 터키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광경의 하나이다.

2) 관료주의

상기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낮은 보수체계로부터 파생되는 관료주의적 업무처리와 비생산적인 업무처리 방식 그리고 불투명한 제반 법률로 인한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법해석 등으로 민원인들은 언제나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자주 처하게 마련이다.

터키의 관료주의는 역사가 깊다. 오스만(영어: 오토만)제국 시절 광활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문서와 인장(서명)을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따라서, 관료주의는 오스만 제국이 남긴 병폐로 생각된다.

또한 터키에는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창구 단일화라는 개념이 아직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일례로 외국인이 전화 신청을 위하여 전화국을 방문하면 우선 어디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자주 물어야 하며 더욱더 특이한 것은 민원인이 서류를 들고서 해당 부서를 찾아 다녀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영어가 일상화 되어 있지 않는데다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영어를 이해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터키의 관공서를 대상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 및 문서의 전산화 부족으로 관료주의 폐해가 더욱 심화된다고 보여진다. 컴퓨터 문서로 처리하지 않고 개별적인 서류를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시간이 더욱 많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3) 외국인의 관공서 업무처리 요령

상기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영어 구사가 거의 되지 않으므로 외국인이 혼자 터키의 관공서를 대상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행히 터키인들, 특히 외국인과의 접촉이 적은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이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는 상당히 친절하며 호의적이다. 따라서 현지인과 동행하여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려는 친절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한번 이상 방문해야 하는 업무상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이 크지 않은 자그마한 선물 등을 업무처리 후에 전달하는 것도 향후의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4) 외국인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

외국인이 터키에서 정착하고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히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서류 등이 많다. 대부분의 정착관련 허가는 1~2년 단위로 갱신해야 되며 그 외 각종 보증서 등도 분기 또는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반 서류에 대한 갱신예정일을 미리 메모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터키에서 생활하는 경우, 터키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때에 납부해야 하는 각종 공과금을 미납하기 일수이다.

선진국처럼 공과금 통지서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간 동안 알아서 해당 관청을 찾아가거나 은행 등에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 관련법규도 자주 바뀌므로 터키인도 살면서 미납하거나 납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터키는 높은 물가 상승률과 은행 이자율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연체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 공휴일

터키는 목, 금 또는 금, 토요일에 휴무하는 다른 이슬람 국가와는 달리 유럽처럼 토, 일요일에 휴무하며 연중 2차례의 종교 휴일(이슬람력으로 12월 및 1월)이 있다.

2008년도 공휴일

일자	공휴일명	비고
1월 1일(화)	신정	
4월 23일(수)	어린이날	
5월 19일(월)	청년의 날	
8월 30일(토)	승전기념일	
9월 29일(월) 오후 - 10월 2일(목)	라마단바이람	종교 연휴
10월 28일(화) 오후 - 10월 29일(수)	터키공화국 건국일	
12월 7일(일) 오후 - 12월 11일(목)	쿠르반바이람(희생절)	종교 연휴

종교 휴일은 이슬람력(음력)에 따라 매년 바뀌고 있으며, 휴일 앞뒤에 월요일 또는 금요일이 끼이면 통상 연속해서 휴무한다. 종교 휴일 전날은 오전 근무만 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종교 휴일 전후 1주일, 여름 휴가철(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연말 연시에는 출장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터키는 회교국으로 12월 성탄절에는 근무를 한다.

라마단 바이람 종교 휴일에 앞선 1달간은 해 있는 시간 동안 금식을 하므로 일상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이슬람국처럼 공식적인 업무시간 단축은 없다.

차. 여행 시 유의사항

1) 여행준비

□ 의복준비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인 경우는 거의 없지만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습하고 싸늘한 추위를 느끼게 되므로 우산을 준비하거나 방수용 코트를 입는 편이 바람직하다.

봄가을은 우리 나라 날씨와 비슷하며 여름에는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므로 시원한 복장이 좋다. 특히, 여름에는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으로 비가 거의 오지 않으며, 자외선이 매우 강하므로 선글라스를 준비하면 도움이 된다.

□ 전기 규격

50Hz, 220V를 이용하며 전기코드는 우리나라와 같이 2개의 플러그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원 연결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다만, 콘센트 규격이 한국은 5mm인데 반해, 현지 산은 4mm로 스파크 발생 등 장애가 있을 수 있으나 큰 무리는 없다. TV 및 비디오는 PAL 방식이다.

2) 여행여건

□ 치안

터키의 치안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 강도 등 강력범죄 발생률이 낮은 수준이나, 최근 좀도둑 등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관광지나 시장 주변에는 소매치기 및 호객꾼들의 호객행위 등이 많은 편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터키도 빈부의 격차가 심한 나라이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입지 조건으로 인하여 외국과 연계된 테러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들 테러는 과거 무장독립투쟁을 주도했던 남동부지역의 쿠르드 반군 및 좌익계 게릴라 단체들로서 이들은 모두 유럽 내 다른 조직들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있다. 2003년 11월에는 이라크파병 철회에도 불구하고 이스탄불 도심에서 두 차례 쌍둥이 자살 폭탄테러가 발생하였고, 2004년 3월에는 2명이 사망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한 바 있다. 2006년 8월 말에도 지중해의 휴양도시 안탈리아 및 이스탄불에서 5차례의 동시다발적인 폭탄테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특히 여행객이 조심할 사항은 이들 테러행위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장소를 택하여 폭탄을 폭발시켜 사회혼란을 조성하거나 때로는 관광객이 붐비는 지역에 폭탄을 폭발시켜 외국인관광객들의 유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붐비는 지역을 출입할 때는 조심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사람들이 웅성되거나 낯색이 이상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

2001년 경제위기 이후 실업자발생이 늘어나고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면서 빈민층에 의한 생계형 범죄인 소매치기, 좀도둑, 사기 등의 경제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거나 친절을 베풀 때에는 일단은 조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터키는 도난사고가 빈발한 지역이므로 여행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 대중교통

터키를 여행하는 여행객인 경우 장거리가 아닌 경우에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경제적이기도 하다. 도시에 따라서 지하철, 전차, 버스, 택시, 합승택시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터키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여행객들의 경우 별도 승차권구입이나 합승택시 요금지불 등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택시요금은 상당히 비싼 편이나, 미터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고 이스탄불의 경우 운행대수가 매우 많아 어디서나 자유롭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비즈니스 여행객들에게는 최상의

교통수단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택시기사는 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한화 1천 원 정도 미만을 제외하고는 수기 영수증을 발급해 준다.

다만 영어가 잘 안 통하므로 목적지를 적은 쪽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택시 차종은 현지 메이커인 Tofas(이탈리아 Fiat와 합작)나 현대 액센트(한국 모델명 베르나)인데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많아 여름에는 창문을 열어도 더운 것이 단점이다.

경제적인 여행을 하려는 관광객의 경우 목적지에 따라서 지하철, 전철, 버스, 합승택시 및 기타 페리 등을 탑승하여 목적지까지 이동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현지 지리에 밝은 사람에게 문의하여 이용하는 요령을 습득해야 한다.

한편, 이스탄불의 경우에는 택시를 이용할 때 여행객으로 보일 경우에는 미터기 요금을 할증(심야 50%) 요금으로 운행한다든지 목적지까지 먼 거리로 우회하여 미터요금을 올리는 관행이 많다. 특히 젊은 운전기사의 경우 주의가 요망된다.

아울러 2005년부터는 신구화폐가 함께 통용되고 있어 현금 지불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택시 운전수의 경우 외국인을 대상으로 눈속임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택시기사가 터키어로 말을 걸어올 때 영어로 되도록 짧게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이 좋으며, 괜히 이것저것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것은 택시 기사에게 현지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되어 우회하거나 돈을 바꿔치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 팁 관행

팁 문화가 매우 발달되어 있어 호텔은 물론이고 식당 종업원, 구두닦이, 이발사, 포터 등에 게도 팁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호텔 등에서 포터가 짐을 옮겨줄 경우, 여행용 가방 1개당 미화 1달러 정도를 주며 호텔 객실 팁은 1박당 통상 1~2달러 정도를 놓아두는 것이 적당하다.

음식점에서는 총 금액의 7~10%에 해당하는 현지화를 팁으로 지불하는 것이 관행이다. 시내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금 외에 별도의 팁을 줄 필요가 없으나 공항에서 일반 택시를 이용할 때 기사가 무거운 짐을 옮겨준다면 1달러 정도를 팁으로 지불한다.

□ 식수 및 음식

터키의 수도물은 식수로 이용할 수 없으며 미네랄 워터를 음료로 구입해야 한다. 현지 식당에서도 물은 무료로 제공하지 않으며 별도로 주문해야 한다. 흔히 접하게 되는 고기를 구워서 요리하는 각종 케밥은 양고기뿐만 아니라 쇠고기 및 닭고기를 재료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한국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소스 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사람도 무리 없이 소화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이슬람 사회이기 때문에 한식당 외에 돼지고기 요리는 판매되지 않는다.

3) 쇼핑

□ 물가

한국에 비하여 터키의 물가는 과일 및 채소 등 식품류는 저렴하나 육류 및 어류는 비교적 비싼 편이다. 수입공산품 가격도 한국보다 오히려 비싼 편이며 현지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은 품질이 조악한 반면에 외국제품 보다는 싼 편이다.

□ 쇼핑장소

이스탄불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꼭 한번씩은 들르는 곳이 술탄아흐메트 지구에 있는 그랜드 바자르(Grand Bazaar)로, 지붕으로 덮여 있어 영어표기로 Covered Bazaar라고도 한다 (일요일 휴무). 터키 카펫, 가죽코트, 터키석을 포함한 보석류, 그릇, 쟁반, 각종 장신구 등 없는 것이 없다. 대부분의 손님이 외국관광객이기 때문에 바가지가 상당하다. 쇼핑을 할 때는 흥정을 잘해야 한다. 흥정에 따라 가격을 처음 부른 가격의 절반 이하로 깎을 수 있다. 가게 주인이 터키식 차나 사과차를 내놓을 때는 부담 갖지 않고 마시면서 흥정하도록 한다.

이스탄불 최고급 백화점으로는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거주하는 Etiler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Akmerkez를 들 수 있다. 주변 지역이 중산층 밀집 거주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외국의 브랜드 제품이 고가로 팔리고 있다.

인근에 Metro City라는 백화점이 2003년 상반기 신규 개장하였으며 2005년에는 Cevahir, 2006년에는 Metro City 바로 옆에 Kanyon이라는 대형 쇼핑몰이 새로 개장하였다. 그 밖에 공항부근에 Galleria라는 쇼핑센터, 아시아 이스탄불에도 Capitol 이라는 쇼핑센터가 있다. 그리고 생필품 등을 전문 판매하는 Migros, 까르푸, Tansas 매장이 시내 도처에 산재해 있어 일상생활용품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역마다 정기 장날이(통상 1주 간격) 개장되므로 이곳에서 주로 채소류와 간단한 의류 및 생필품 등을 싼값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스탄불의 최대 번화가인 Taksim 광장부근의 이스티크랄 거리(Istiklal Caddesi)에는 각종 음식점과 의류 전문점 그리고 유흥시설 등이 있다.

4) 특산품

터키의 특산품으로는 터키 카펫, 가죽의류, 터키석, 은세공품, 터키식 차(tea), 터키식 타일(tile) 색도자기 등이 있다.

5) 기타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터키사람은 친절하고 양순하며 매우 인간적으로, 특히 외국인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만사를 제쳐 두고 도와주려고도 한다. 하지만, Taksim등 도심에서 소매치기를 당해서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는 보복 등이 두려워 잘 도와주지 않는다.

또한 이스탄불과 같은 대도시도 비교적 치안이 안정되어 있어 강력범죄 날뛰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일부 외국인들을 상대로 지나친 친절을 베풀며 수면제가 들어 있는 과자나 음료수 등을 권한 후 이를 먹거나 마신 외국인이 정신을 잃게 되면 돈, 여권 및 중요한 소지품 등을 몽땅 갖고 도주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외국인 비즈니스맨들이 주로 투숙하는 이스탄불 최대 번화가인 탁심 지역에서 외국인에게 수입상인 양 접근하여 인근 술집으로 데리고 가서 엄청난 바가지를 씌우는데 한번 당하고 나면 경찰을 불러도 소용이 없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하며 그 사람이 상담을 원한다면 호텔 내 로비나 식당에서 상담하는 것이 좋다.

카. 문화적 금기사항

터키는 종교적으로 이슬람 문화권이기 때문에 아주 친한 경우가 아니면 터키인들과 종교적인 얘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종교적인 영향으로 인해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혹시 한국식당에서 만나더라도 예의상 돼지고기는 권하지도 말고 먹지도 않는 것이 좋다.

또한 터키인들은 과거 오스만제국의 후예라는 자부심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터키를 비하하는 등 자존심을 자극하는 언행은 피하는 것이 좋다.

타. 유용한 연락처

한국기관 및 주요 연락처

기관명	위치	전화	팩스
무역관	Yapi Kredi Plaza B Blok Kat:10 /Istanbul	0212-325-3646	0212-325-3642
대사관	Alacam Sok No.5 Cankaya Cad 06690 Ankara	0312-468-4822, 3	0312-468-2279
총영사관	KAPTANPASA MAH, PIYALEPASA, BULVARI, NO.14, ORTADOĞU PLAZA, KAT.19, OKMEYDANI, 34484, ŞİŞLİ, ISTANBUL, TURKEY	0212-368-8368	0212-320-7413
한인회	Halaskargazi Cad. Simsek Apt. No:281, D:3, Sisli -Osmanbey / Istanbul	0212-291-6596, 8	0212-291-6612
대한항공	EGS Buniness Park B-3, Block K:5 N:214 Yesilkoy / Istanbul	0212-465-2650	0212-465-2655

현지기관 및 경제단체

기관명	위치	전화	팩스
이스탄불 상업회의소	Resadiye Cad, 34378, Eminonu Istanbul	0212-455-6031	0212-520-1526
대외경제관계위원회(DEİK)	Istiklal Cad. 286/9, Beyoglu 80050 Istanbul	0212-243-4180	0212-243-4184
터키수출진흥센터 (IGEME)	Halaskargazi Cad. No: 220/3 Osmanbey 80020, Istanbul	0212-233-0677	0212-230-0277

비상시 전화번호

종류	전화번호
범죄신고	155
응급환자 발생시 (앰불런스)	112
화재신고	110

파. 관광명소

터키는 과거 그리스, 로마문화, 기독교문화, 오스만터키 등 다양한 역사적 유적지에 천연의 지형과 기후로 인하여 여행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관광지로 유명하다.

□ 이스탄불 관광명소

이스탄불은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아시아지역과 유럽지역으로 나누어지며 다시 유럽지역은 Golden Horn을 사이로 하여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나누어진다. Golden Horn의 남쪽 보스포루스 해협과 마르마라해를 끼고 있는 구시가지는 과거 비잔틴시대인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하여 수도로 지정된 이래 오스만터키가 1923년 터키공화국의 수립으로 몰락할 때까지 17세기 동안 수도로 사용되었던 만큼 역사적인 의미가 깊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빈번한 반란과 지진, 화재 등으로 대부분의 유적들이 파괴되고 일부만 현재 남아있는데 이스탄불의 최대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 아야소피아-성소피아: Aya Sophia Museum

- 이스탄불 구시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잔틴 건축의 최고 걸작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대성당이었으나 오스만제국시대에 회교사원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되어 있으며 기독교의 특징인 뛰어난 성모마리아의 모자이크화 및 이슬람교 코란의 금문자와 미나레트 (첨탑)등이 동거하는 기묘한 세계를 연출하고 있다.

○ 블루모스크: Sultanahmet Camii

- 소피아 사원의 남쪽편에 약 200 미터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부의 벽과 기둥이 푸른 색 바탕의 타일로 장식되어 있어 일명 블루모스크라 불리고 있다. 돔의 200 개를 넘는 조그만 창에는 스테인드글라스가 장식되어 있어 아름다운 햇살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 톱카프궁전: Topkapi Palace Museum

- 이스탄불에서 가장 볼거리가 풍성한 곳이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궁전으로 정복자 메흐메트 2 세에 의해 건설돼 1467 년에 완성되었다. 오스만 제국의 극치를 보여주는 왕궁으로 약 400 년간 오스만 제국 권력의 부의 중심이었다.
- 궁전 내부에는 술탄에게 보내온 각국의 보물과 도자기, 술탄의 식기, 의복, 장신구, 무기 등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주변이 49 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는 86 캐럿의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가 박힌 단검이 가장 눈에 띈다.

○ 지하 저수지: Yerebatan Saranzi

- 336 개에 달하는 돌기둥(높이 8m)으로 지탱되고 있는 길이 140m, 폭 70m 지하 저수지로 비잔틴 시대부터 외적의 침입 등으로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의 옛이름)이 포위 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물을 저장해놓던 곳이다. 현재는 관광객을 위하여 저수는 하지 않으나 바닥에는 계속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나무 받침대를 이용하여 관광객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져 신비스러움을 자아내기도 한다. 007 시리즈(러시아로부터 사랑을 담고)의 촬영에 배경이 된 곳으로도 유명하다.

○ 돌마바흐체궁전: Dolmabahce Palace

- 이스탄불 신시가지 쪽 보스포루스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터키의 르네상스 양식의 궁전으로 19 세기 구시가지가 쇠락해 감에 따라 제 2 의 궁전으로 건축된 것인데 그 호화로움과 예술적인 아름다움으로 유명하지만 당시로서는 지나치게 사치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 되기도 한다. 이 궁전은 터키공화국의 건설자인 아타투르크 대통령이 1938 년 집무 중 사망 한 이후로는 박물관으로 개장하고 있다.

- 루메리히사르성
 - 콘스탄티노플의 정복자인 메흐멧 2 세가 정복전쟁 후 불과 4 개월 만에 세웠다는 성채로 보스포러스를 내려다보이는 위치에 원형 그대로 복원되어 있다.
- 갈라타타워
 - 구시가지의 Gold Horn 의 맞은편인 신시가지 쪽 언덕 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비잔틴 시대 때 망루로 건축된 성이다.
 - 그 밖에도 이스탄불에는 군사 박물관, 타일 박물관, 고고학 박물관, 해양 박물관, 이슬람 박물관 등 각종 박물관과 아름다운 보스포로스 해협 양안을 조망할 수 있는 크루즈 등 관광거리가 풍성하며 수백 년 간의 전통을 보유하고 있는 약 3,000 여 개의 상점들로 이루어진 그랜드 바자르(Capalı Carsi: 닫힌 시장이라는 뜻)에서 관광 겸 선물 구입을 위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 터키 내 관광명소

- 트로이: Troy
 - 고대에 트로이의 목마를 사용하여 그리스군이 트로이군을 무찔렀던 이야기의 검증에 힘쓴 바 있는 독일인 하인리히 슐리만은 1873 년 이곳 트로이에서 황금팔찌와 귀걸이 등의 보물을 발견하였다. 지금은 유적지만 남아있으며 거대한 목마가 당시를 회상하며 세워져 있다.
- 파묵칼레: Pamukkale
 - 이즈미르의 동남부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온천 리조트로 지하로부터 흘러나온 석회를 머금은 온천물이 구름지대를 흘러내리면서 새하얀 석회봉을 형성하며 기묘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 하지만 이곳이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인근 호텔 등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온천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석회봉 위로는 온천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인위적으로 흘러내리는 지역을 조정 하고 있고 유네스코 보호유적지로 지정되어 있다. 상부에는 옛 로마시적의 유적지(극장, 교회, 성벽 등)가 널려 있고 그 중앙에는 아직도 라듐 등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온천에서 목욕을 즐길 수 있다.
- 에페스: Efes
 - 에게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고대 에페스는 한때 로마의 수도로 알렉산더 시대부터 로마 기독교 시대까지 번영을 누렸던 도시다. 유적지가 많이 보전되어 있어 그리스보다도 오히려 볼거리가 더 많은 것으로 평가 받는다. 당시의 목욕탕, 도서관, 신전 등이 아직도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 성모마리아의 집
 - 성모마리아가 노년에 살았던 가옥으로 조그만 교회가 세워져 있으며 지금도 수많은 순례자가 찾아오고 있다. 에페스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글 안내판도 볼 수 있다.
- 카파도키아: Cappadocia
 - 터키의 아시아 중앙부에 대자연이 오랜 세월을 걸쳐 만들어온 기묘한 공간으로 독특한 바위의 형태와 계곡의 스케일의 거대함으로 탄성을 지르게 하는 터키 최대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 지역은 태고의 화산 분화에 의한 화산재와 용암 등이 오랜 세월 동안 바람과 비, 눈에 의하여 침식되어 만들어진 곳이다.

- 안탈랴: Antalya
 - 터키 남부의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휴양도시로 수많은 호텔이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지역으로부터 바다와 태양을 배경으로 일광욕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붐비는 곳이다.

- 슈멜르사원
 - 흑해연안의 트라브존에서 내륙 쪽으로 약 20 km 를 계곡과 거대한 산악을 끼고 들어가다 보면 수백 미터 높이에 위치한 절벽에서 수도사들이 거처했던 사원을 발견할 수 있다.